편집 조선어학회

한글

昭和九年四月十四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十一年八月一日 (每月一日一回發行)

〔辭典特輯〕

목 차

辭典編纂에 關한 全般的 問題……鄭 寅 承(1)
朝鮮語辭典에서의 語彙排列의 順序問題……崔 鉉 培(8)
朝鮮語 單語 成立의 分界線……李 克 魯(29)
辭典編纂과 綴字法……金 允 經(32)

第四卷 第七號 (七八月 合號)

값 七錢

319-2-4(7)=2

시골말 캐기 잡책

(方言採集手帖)

延禧專門學校 文科敎授 崔鉉培 先生 엮은

定價 ○、三○ 送料 ○、○二

言語의 硏究와 整理上 重要性

시골말(方言)은 그 시골 先民들이 끼친 鄕土文化의 重要한 한 遺産이다。이를 散佚과 湮滅에 放任함은 文化 繼承 및 擴充의 義務를 가진 後人의 道理가 아니며、더구나 이를 混亂의 自然에 放置함은 社會文化의 發達을 圖謀하는 現代人의 羞恥가 아니면 안될것이다。이제 바야흐로 **朝鮮語文의 硏究 및 整理의 運動**이 高調되는 이때에 各地方의 方言을 캐어모아서 整理하는것은 크게 意味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 책은 天文、地理、人倫、衣食住、動物、植物、人體及疾病、人事 年中行事、農村語彙、漁村語彙、山村語彙、其他에 亘하야 語彙와 音聲과 方法의 各方面에 關하야 시골말을 캐는 方案을 가장 理想的으로 마련한것이니、이 한권을 가지고 한 시골말을 캐어볼 것 같으면、그 經驗은 족히 **朝鮮의 語音、語彙 及 方法**에 關한 正確한 識見을 얻을뿐 아니라、言語文化에 對한 自己認識의 深化 自己愛護의 熱化로 말미암아、朝鮮의 文化向上에 寄與함이 있게 될것을 믿는바이다。十三道 各處에 있는 文化靑年은 各各 이 책을 使用하야 自己 시골의 말을 캐어모아、**朝鮮語 整理의 歷史的 事業**에 一臂의 力을 보태기를 아끼지 말라。

各種 男女 中等學校와 專門學校에서는 이 시골말 캐기(方言採集)를 **夏期休暇의 課題**로 함은 歸鄕 或은 旅行하는 學生에게 無上의 좋은 敎育手段이 될것이요、或은 이를 **課外敎材로 使用**하더라도 우리의 言語뿐 아니라、人倫、風習、生活에 對한 正確한 常識을 涵養하는 隨益이 있을줄로 믿는다。

發行所 朝鮮語學會
京城府花洞町一二九番地
振替口座 京城一〇〇四四番

辭典 編纂에 關한 全般的 問題

鄭 寅 承

우리가 다 가치 苦待하고 있는 朝鮮語學會 編纂의 우리 辭典은 過去 七年동안에 여러 階段의 여러 問題를 거쳐 그 巨創한 全 工事의 거의 大部分을 넘어、이제 바야흐로 그 實際的 內容 整頓의 重要期에 들어서서 編纂에 關한 모든 問題의 全般에 亘하여、어느것을 勿論하고 一一이 그 最後의 斷案을 決定的으로 지어나가게 된 이때이매、그 모든 問題를 한번 全般的으로 들어 널리 大方家 여러분 앞에 參考를 드리는 同時에、여러분의 賢明한 輔導가 있기를 衷情으로 바라는바이다。

朝鮮語辭典의 編纂 工事를 大體로 基礎工事와 實務工事의 두 方面으로 보아、아래와 같은 여러 問題를 關聯的으로 考察하여야 될줄 안다。

〔가〕 基礎工事의 네가지 問題

一、語材 蒐集에 關한 問題

語材라 함은 우리의 모든 生活에 關한 千種 萬類의 事物의 名稱으로부터 그 事物들에 關한 또한 千種 萬類의 動作、狀態와 및 우리의 생각이 表示될수 있는 一切의 말과 소리들을 總稱함이니、그 數가 實로 無限할것이다。그러나 이 無限한 말과 소리를 有限한 範圍 안에 網羅 解說하여 누구에게든지 그 所要하는 語材에 對한 知識을 주게 되는것이 곧 辭典의 使命이다。그러므로 있는대로의 모든 語材를 總蒐集함에는 縱으로 古今의 圖書 文籍等을 골고루 들추어야 될것이며、橫으로 各地方 사람들의 使用하는 言語를 널리 調査하여야 되는것이니、그 蒐集의 工程이 實로 容易한 일이 아닐뿐 아니라、그 範圍가 또한 浩瀚廣漠한것이다。

그러므로 辭典類에는 그 用途와 目的을 따라 語材蒐集의 範圍가 각각 局限되는것이 普通이니、各種 專門語辭典、古語辭典、新語辭典、標準語辭典、方言辭典、語源辭典、外來語辭典等이 그 例이다。

그러면 지금 朝鮮語學會에서 編纂하는 辭典은 어떠한 範圍까지의 語材를 收容할것인가 하면、大體로 아래와 같은 範圍를 目標로 하는것이다。

6818060

ㄱ、一般 常用語는 全 領域에 亘하여 어떠한 말이든지 빠짐 없이 總網羅할것이다。

ㄴ、常用語 밖에 專門用語 곧 天文、地理、動、植、鑛物、理、化學等으로부터 法律、政治、宗教、哲學、文藝、農、商、工等等 人文科學의 各部門을 通하여 特殊하게 使用하는 術語들까지도 우리의 普通生活에 흔히 關係되는 範圍까지는 될수있는대로 빼지 않고 收容할것이다。

ㄷ、外來語에 있어서는、古來로 輸入 同化된것이나、現代에 새로 流入通用되는것이나를 勿論하고 一一이 그 同化의 程度와 採用의 必要性 如何等을 調査 檢討하여보아서、現代 生活上 不得已 쓰아 할것에 限하여 收容할것이다。

二、標準語 査定에 關한 問題

앞에서 말한바의 各方面으로부터 蒐集한 各種 言語에는、서로서로 不一한 點이 많을것은 勿論이요、같은 한 方面의 말 가운데에서도 한가지 事物을 여러가지로 稱呼하는 일이 또한 많은것이 事實이니、『게(蟹)、궤、기、거이』라든지、『호랑이、범』、『죽다、퉤지다、돌아가다。세상버리다、세상떠나다』라든지、『커번、거번、접때、거즘께、지난번、요전、전자、아레、거즈막、향자、앞서、전일』等이 그 實例이다。

이것은 言語가 생긴 遙遠한 上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數千年동안 內部的、外部的 여러가지의 情勢를 따라 各種 各樣으로 進化、發達、變遷、消長等의 無限한 變化를 거쳐 오되、그 사이에 아무·一定한 標準이 없이 되어 왔기때문이다。이제 이러한 말들을 蒐集한 材料 그대로만은 到底히 體系있게 辭典의 形式으로 다룰수가 없는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것이다。

그러므로、어느 나라 말을 勿論하고 처음으로 그 整理의 事業을 시작함에는 반드시 이 標準語 問題가 第一線으로 나서게 되는것이니、이에는 가장 公正 妥當한 方法에 依하여서만 그 歸決이 可能할것이다。

이제 우리 말이 생긴 以來 標準語를 決定하는 처음의 工事로 朝鮮語學會에서 일직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는 原則을 세우고、이 大體 原則 아래에서 各種 類別的 細則을 세워가면서、各個의 語辭를 一一이 調査 檢討하여 그 發音、意義、用例들의 比較、對照、關聯、分合等에 依하여 하나씩 하나씩 標準、非標準을 査定하여 나가는중이다。

여기에 標準語 決定의 問題를 全體的으로 말한다면 아래와 같은 要項으로 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ㄱ、서울을 中心으로한 中流 社會에서 現在 常用하고 있는 말을 大體로 標準하여 될수있는대로 規範있게 쓰이는 편의것을 取한다。 그 理由는 서울은 우리 文化의 中心地가 되어、그 말의 通用 範圍가 다른 地方말보다 比較的 普遍性이 많은것이 큰 理由의 하나이요、또 그 語音이 比較的 正確明瞭하고 그 語規가 比較的 整然한 點이 많으므로、말의 品位로나 敎育上 便宜로나 다른 어느 地方말보다도 가장 合理性을 많이 가진것이 또한 큰 理由의 하나이다。

그러므로、서울말 中에서도 特殊的 變化로 이루어진 上流 社會의 말이라든지 下流 社會의 말이라든지 過去時代에 屬한 옛말들이라든지는 一般 通用性이 없으므로 標準語로서의 資格은 가질수 없는것이며、서울의 中流 社會의 現用語 가운데에서도 앞에 말한 두가지 뚜렷한 條件을 갖추지 못한 말은 또한 標準語의 資格이 없는것이다。

ㄴ、그러면 서울 中流 社會의 現用語로서 만일 不完全 또는 不備한 곳이 있는 때는、어떠한 方法으로 그에 該當한 標準語를 補充할것이냐가 問題이다。

옛날의 한동안은 본말을 두고도 일부러 漢字語를 極力 使用함으로써 자랑을 삼아왔기때문에、우리말의 잃어버려 없어진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는바이니、오늘에 있어서야 누구나 그런 얼빠진 짓을 거듭할리 萬無하지마는、不幸히도 前代의 餘孽로 말미암아 現在의 우리말에는 모자라는 곳이 여간 많지 아니하여、이미 朝鮮語化한 漢文語 가령『영웅、천하、신문、기차』같은 말들은 그대로 우리말삼아 標準語 補充에 使用하고라도、오히려 모자라는 말들은 무슨 方法으로든지 補充하여야 되겠으니、이에는 마땅히 우리 여러 地方의 좋은 말들을 널리 調査 檢索하여 서울말의 모자란 곳을 積極的으로 補充 使用할것은 勿論이요、옛날 各時代의 用語들을 또한 充分히 探査 考究하여 適當히 復活 使用하는것이 當然할것이다。

ㄷ、그러나 우리 生活의 時代的 進步를 따라 從來에 없던 新事物이 나날이 늘어가므로、그에 따르는 言語도 自然히 나날이 늘어가지 아니할수 없는것이니、이에는 不得已 새 術語를 지어낼 必要가 생기는것이니、『왜못、양잿물、목돌이、팔육시계、얼음뜸질』等이 그 例이며、或 全然 新奇한 外來事物에 따라서는 不得已 外來語 그대로를 歸化 使用할수 밖에 없는 境遇도 種種 있는것이니、『라디오、피아노、남포、사이다』같은 말들이 그 例이다。

이러한 때의 새 術語나 外來語等을 採用함에 있어서는 특히 愼重한 考究와 方法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319-2-4(7)=2

안될것은 勿論이다。

三、綴字法 統一에 關한 問題

標準語 問題와 아울러 語文 整理에 極히 重大한 問題의 하나는 綴字法 統一의 問題이다。더구나 우리 글에 있어서는 從來로 綴字의 方式이 各樣 各色이어서 紊亂 不統一하기 참으로 짝이 없어、文化의 普及 發展에 여간 障害가 됨이 아니었으매、이의 整理 統一은 우리 全體의 痛切히 느끼어온 問題 아닐수 없었다

이 問題는 六年前부터 朝鮮語學會에서 至大한 努力과 至貴한 熱誠을 傾注하여 爾來 三年間 犧牲하여온 精力의 結晶으로 우리의 文化史上 特記할 大事業의 하나인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社會에 내놓게 됨으로써 이 問題의 커다란 一段의 歸決을 보게 된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일이므로、지금 여기에서는 긴 말을 줄이고저 하거니와、다만 한 말로써 그 案의 骨子를 다시 한번 想起하건대、『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한것이다。

四、語辭의 分類에 關한 問題

言語를 組織하는 모든 語材를 各種 單語로 分析하는 問題이니、이는 言語敎育에 있어서만 必要한것이 아니라、우선 辭典에 語材를 記入함에 있어서 어디만큼을 잘라서 한개 말로 삼아 적을것인가가 당장 先決을 要하는 問題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코」=이름씨、「길이」=이름씨라 함으로써 「象의 鼻長이 암만이라」 할 때의 그 語法的 組織을 說明함에만 必要할뿐 아니라、「코」라、「길이」라 들로 잘라서도 각각 한개의 單語로서 辭典에 各別로 記入하여야 될것이니、그것은 「鼻」라는 말과 「長」이라는 말의 두개 딴 말이 되기때문이요、그 두 말을 붙여서도 한개의 單語로서 또 記入하여야 할것이니、이는 「象」이라는 딴 말이 또 한개 되기때문이다。「더벅머리」、「곰배팔이」라든지、「문고리」、「모래밭」、「암소고기」、「쇠고깃국」、「사랑방문」、「사립문짝」、「고등상업학교」、「경기도지사관방」 같은 말들이라든지、「가다」、「간다」、「갔다」、「가겠다」、「가지않겠다」、「말이다름질하더라」 같은 말들은 어디를 자를것인가 或은 어디까지 붙일것인가를 一定한 標準이 있게 하여야 될것이니、語辭의 分類問題는 이런것을 이름이다。이 問題에 關한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를 들수 있다。

가、品詞의 分類

品詞 分類의 全的 目的이 여기에만 있는것은 아니지마는、語辭 分類를 正確히 하는데는 반드시 品詞 分類를 먼저 正確하게 하여야 될것은 앞에 든 語例에서 잘 알수 있는것이다。

ㄴ、複合語의 通則 成立

어느 品詞는 어느 品詞와 複合이 된다든지 複合될 때의 일어나는 現象은 어떠하다든지 複合되지 아니한 때에 比하여 實質上 差異는 어떠하다든지를 檢察 統計하여 合理的 通則이 선 뒤라야 그 各種各樣으로 互相 複合되는 말들을 整然하게 處理할수가 있나니、이 複合語 處理方法 如何에 따라서는 같은 材料의 辭典이라도 몇배나 複雜할수도 있고、몇배나 簡明할수도 있게 되는것이다。

ㄷ、用言의 活用法 確定

우리 말의 用言에는 不規則으로 活用하는것이 자못 많으나、그런것들 中에는 또한 別個의 작은 規則들을 끼리끼리 이루어 있는것은 實로 偶然한바 아니니、辭典에 있어서의 그들의 處理는 그리 難事가 아니로되、動詞의 自他動、被動、使役等 變換의 活用에 이르러는 『이、히、리、기、구、호』等 語尾의 붙는 法이 자못 複雜 不一한바 많으니、이의 整頓 確定은 또한 어려운 問題의 하나이다。

ㄹ、頭尾辭 및 토의 類別 整頓

이 또한 文法의 領域에 屬한것으로 文法上의 分類 處理를 따라 辭典에서의 處理가 決定될것이다。

〔나〕實務工事의 세가지 問題

一、語意 註解에 關한 問題

辭典의 모든 問題 中에 가장 重要한 實質的 使命이 註解에 있는것은 두말할것 없는것이다。註解의 正否 精粗에 依하여 그 辭典의 生命이 左右됨은 勿論이요、잘못하면 도리어 社會에 害毒을 끼치게 되는것이기때문에、註解의 모든 條件에는 무엇을 勿論하고 嚴正 精確하이 그 一貫한 主旨가 되어야 하나니、그 要項을 대강 말하면 아래와 같다 하겠다。

ㄱ、語辭의 形態를 的確히 明示할것。

여기에 形態라 함은 發音의 表示、文法上의 關係、語源的 變遷、및 專門語、古語、新語、方言、俗語、略語、外來語等의 區別表示를 이름이다。

ㄴ、語意의 說明을 正確하게 할것。

語辭에 따라 혹은 直接、혹은 反證、혹은 例示、對照、羅列、敍述等 각각 그 適當한 方式을 使用하되、항상 그 語意에 過不及이 없도록 嚴正 適切을 期할것이니、辭典編纂의 全 工事中에 이 要項이 가장 重要한것이 된다。

ㄷ、必要에 依하여는 揷圖나 表式 같은것을 提示할것。

이는 그 語辭에 對한 觀念을 더욱 明瞭하게 하는 方法이니、이에도 또한 絕對의 正確과 適切을 要하는 것이다。

二、語辭 排列에 關한 問題

語辭의 排列은 찾아 보기에 가장 便易하도록 하여야 되는것이니、이것은 實用上의 極히 緊要한 事項이된다。만일 排列 按配의 方法이 그 適當을 얻지 못할것 같으면、아무리 內容에 萬金의 價値를 담아 있다 할지라도、可惜할사 소경의 丹靑이라、그만 그 目的을 達할수 없는 遺憾千萬의 일로 되고 만다。

이제 그 排列 順序의 可能한 方法을 생각하여보건대、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있겠다。

ㄱ、語源 注重의 排列法

이 方法은 한 語源에 關聯된 여러 語辭들을 그 첫 音節 같은것끼리 한떼로 모아 벌림을 主旨로 하는 方法이니、가령「손」(手)이란 말에 關聯된「손발」、「손잡이」、「손톱」들을 한떼로 모아 놓고、「손」(客)이란 말에 關聯된「손님」「손치다」들을 한 떼로 모아 놓는것이니、이 方法의 長點은 一個語를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말과 關聯되는 數個語를 同時에 參考하기 쉽게 된 點인데、그 反面에는 短點이 여간 많지 아니하니、첫째 누구를 勿論고 辭典을 찾는 目的은 大部分이 말의 뜻을 몰라서 찾는것인데、뜻 모르는 글자를 어느 뜻의 말과 한떼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분간하여 손쉽게 찾을것이며、둘째 가령 뜻 아는 말을 찾는다 할지라도、그 말이 떼를 이루어 있는지、單獨으로 있는지、그런것까지 다 알기 前에는 또한 손쉽게 찾아내기가 어려울것이며、셋째 語意의 關聯은 반드시 첫 音節의 同一함에 限한것이 아니니、中間音節이나 끝 音節로 語意 關聯이 되는것도 있고、音이 全然 다르고도 語意의 關聯이 密接한것도 많으니、어찌 첫 音節의 같은 말만으로 語源 關聯을 다 表示할수 있으리요。一分의 長點을 取하기 爲하여 九分의 短點을 스스로 짓게 되는 方法이라 하겠다。

ㄴ、字形 注重의 排列法。

이 方法은 字形의 같음을 따라 順次로 隣接 排列함을 主旨로 하는 方法이니、가령「가」로 시작된 말은、그런것끼리「각」으로 시작된 말、「간」으로 시작된 말、각각 끼리대로 排列하는것이다。이 方法의 長點은 같은 字形은 같은 字形끼리 한결같이 나란히 벌려있으므로 찾고저 하는 字形과 類似한 字形들이 나오기까지 數十語 혹은 몇段 몇페지라도 빨리 훑어 내려갈수가 있는 便宜를 가진것이니、이 便宜는 實로 辭典의 至貴至大한 長點임이 틀림없다。그러나 오늘날 우리글의 字形이 어떤 말은 여러가지로 쓰오던터이므로 辭典을 찾는이가 그 辭典에 쓰여있는 字形을 모를 때는 걱지 않은 困難을 當하게되는 일이 있으니、이 點에 充分한 考慮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ㄷ、字音 本位의 排列法

이것은 二十 四個의 字母를 一定한 順序로 定하여

놓고 거 羅馬字 辭典들의 排列 方式과 같이 하는것이니、이 方法은 字形을 관계하지 않고 語音을 따라 찾아보도록 하는 方法이니、音만 正確히 알것 같으면 그 音이 적혀있을 자리에 가서 찾으면 틀림없이 나오게 되는 極히 確實簡易한 方法이다。그러나 이 排列法은 橫綴式 記寫法에 있어서는 絕對 唯一한 方法이지마는、現在의 綴字法에 있어서는 十分 考慮를 할 點이 많으니、첫째 ㅇ(아야들의 첫소리)을 글짜로 認定하면서 소리로는 否認하여야만 되는 矛盾이있으며、또는 辭典에 벌려있는 字形들이 가지런하지 못하므로 몇段 몇페지를 거침없이 훑어 내려보는데는 암만하여도 字形式 排列法만큼 빠르지 못한 短點이 있는것도 些小한 問題가 아닌것이다。

三、編纂의 體裁에 關한 問題

이것은 모든 實質的 問題 밖에 純全히 外形에 屬한 여러가지 事項을 이름인데、이 또한 辭典의 實用上 價値를 많이 左右하는것이라、결코 輕視할 問題가 아니니、그는 대개 아래와 같은것들이다。

ㄱ、記載 方式에 關한것이니、橫讀式으로 쓸것인가? 縱讀式으로 쓸것인가? 欄은 몇段으로 할것인가? 挿圖 表式等의 樣式은 어떻게 할것인가? 等의 問題이요。

ㄴ、字體와 符號에 關한것이니、語辭와 註解의 字體、各種 符號의 樣式、및 文字、符號、圖表等의 互相 連絡 關係等의 問題이요。

ㄷ、目次와 凡例에 關한것이니、아무쪼록 檢索에 時間이 經濟되도록 一目瞭然하게 目次를 作成하여 卷頭 혹은 卷末에 添附하는것이며、檢索 讀解의 方法을 指示하는 簡明한 凡例를 만들어 卷初에 揭載하는것이요。

ㄹ、最終으로는 印刷 工事에 關한것이니、版의 大小、字樣의 鮮明、校閱의 精確、製本의 完美等에 이르기까지 徹頭徹尾 緻密 周到한 注意로써 始終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것이다。

六月十五日

辭典編纂室에서

朝鮮語辭典編纂會를 祝함

江景 方大奉

江景郵便局簡易保險集金係勤務

朝鮮語辭典에서의 語彙排列의 順序問題

崔 鉉 培

第一 「本文」에 依한 音節式 排列

順序

朝鮮語辭典에서 그 낱낱의 말을 어떠한 順序로 排列할것인가? 이것은 年來로 우리의 關心을 끌어오던 問題이었지마는, 이제 朝鮮語學會에서 엮는중에 있는 朝鮮語辭典이 차차 完成의 지경으로 가까와가는 이때에 있어서는 더욱 切實히 그 解決을 要하는 問題이다。나는 이에 나의 愚見을 陳하야 社會大方의 研究 叱正을 기다리고저 한다。

이 問題는 크게 보면 대략 두가지의 方式으로 나누인다。하나는 한글 二十 四字의 字母分解式에 依하는것이요, 또 하나는 從來의 『本文』(反切)順序에 依한 音節式으로 하는것이다。이제 이 問題의 研究考察을 쉽게 하기 爲하야 먼저 音節式 排列부터 말하기로 한다。(이밖에 語源式 排列과 純音式 排列의 問題도 있으나, 이는 거의 討論할 必要도 없을만큼 純音式 排列이 낫다고 본다)

音節式 排列의 順序의 根據는 在來의 所謂 「本文」(反切)에 있음은 더 말할것 없다。이 『本文』이란 音節組織은 언제 누가 創始한것인지 모르겠으나(이의 研究는 他日로 밀운다) 古來로 조선사람이 조선글을 배우는 基本이 되어 왔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本文(反切)

ㄱㄴㄷㄹㅁㅂㅅㅇㅣ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ㄱ)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ㄴ)
다댜더뎌도됴두듀드디(ㄷ)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ㄹ)
마먀머며모묘무뮤므미(ㅁ)
바뱌버벼보뵤부뷰브비(ㅂ)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ㅅ)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ㅇ)
자쟈저져조죠주쥬즈지(ㅈ)
차챠처쳐초쵸추츄츠치(ㅊ)
카캬커켜코쿄쿠큐크키(ㅋ)
타탸터텨토툐투튜트티(ㅌ)

파퍄퍼펴포표푸퓨프피(표)
하햐허혀호효후휴흐히(흐)

이것이 世宗大王의 訓民正音의 二十 八字를 基礎로 한것이로되, 거기에 若干의 變更을 더하였다。곧 十四行의 닿소리(初聲)의 順序와 十 一字의 홀소리(中聲)의 順序를 變更하였으며、바침으로 쓰이는 닿소리를 上記 ㄱㄴㄷㄹㅁㅂㅅㅇ의 八字에 限하였다。그리하야 上記 十 四行 一百 五十 四 音節(낱내)을 基本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ㄱㄴㄷㄹㅁㅂㅅㅇ의 八字를 바침하는것으로써 그 運用의 全部를 삼았는데、다만 두 母音字가 거듭하여서 쓰이는것을 補充하기 爲하야 八字의 바침과 同列하여서 「ㅣ」(땡이、딴이、떼、붸、외等의 名稱이 있음)를 더하고 또는 「ㅗㅏ」「ㅜㅓ」의 거듭을 補充하기 爲하야 各行 아래에 「나겨」를 添加하기도 하고 「과궈、놔눠、돠둬、롸뤄、뫄뭐、봐붜、솨숴、와워、좌줘、촤춰、콰쿼、톼퉈、퐈풔、화훠」를 十 四行의 뒤에 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약 上記 在來의 本文이 그 條理와 音數가 具備한것일것 같으면、音節式의 排列順序는 比較的 簡單한것이 될것이다。그렇지마는 事實은 그렇지 못하다 곧 그것은

(ㄱ) 된소리의 位置를 規定하여 配定하지 아니하였기때문에 初聲 全般의 順序가 完全히 決定되지 못하였으며、

(ㄴ) 홀소리 ㅑㅕㅖㅛㅠㅢㅐㅔ(、는 略함。以下 倣此)가 ㅣ와 거듭하여서 쓰이는것에 對하야 正當한 地位를 決定하지 못하고 다만 ㅣ를 다른 바침 닿소리와 同一視한것은 不合理할뿐아니라、또 順序決定上으로 매우 不完全한것이다。그러고 「나겨」의 位置도 正當하게 決定되지 못하였다。——그리하야 홀소리 全般의 排列順序가 不合理하고 또 未備하다。

(ㄷ) 바침으로 쓰이는 닿소리는 다만 여덟字에만 限하였기때문에 바침 全般의 規定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세가지의 缺陷을 在來의 本文(反切)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짤로 다음의 세가지의 큰 問題가 생긴다。(ㄱ) 初聲(첫소리)으로 쓰이는 닿소리의 排列順序 問題 (ㄴ) 홀소리의 排列順序 問題 (ㄷ) 바침으로 쓰이는 닿소리의 排列順序 問題가 생긴다。

(ㄱ) 初聲의 順序

初聲의 順序에는 大略 네가지의 方式(재)이 可能하다。

第一式 (첫째 재)은 된소리를 그 예사소리의 다음 줄(行)로 삼는것이니、곧 다음과 같이 十 九行이 된다。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까꺄꺼껴꼬꾜꾸뀨끄끼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
다댜더뎌도됴두듀드디
따□떠□또□뚜뚀뜨띠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
마먀머며모묘무뮤므미
바뱌버벼보뵤부뷰브비
빠□뻐뼈뽀뾰뿌쀼쁘삐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
싸쌰써쎠쏘쑈쑤쓔쓰씨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
자쟈저져조죠주쥬즈지
짜쨔쩌쪄쪼쬬쭈쮸쯔찌
차챠처쳐초쵸추츄츠치
카캬커켜코쿄쿠큐크키
타탸터텨토툐투튜트티
파퍄퍼펴포표푸퓨프피
하햐허혀호효후휴흐히

第二式 (둘째 재)은 된소리의 줄을 在來의 十四行의 끝으로 붙이는것이니, 다음과 같이 된다。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
다댜더뎌도됴두듀드디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
마먀머며모묘무뮤므미
바뱌버벼보뵤부뷰브비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
자쟈저져조죠주쥬즈지
차챠처쳐초쵸추츄츠치
카캬커켜코쿄쿠큐크키
타탸터텨토툐투튜트티
파퍄퍼펴포표푸퓨프피
하햐허혀호효후휴흐히
까꺄꺼껴꼬꾜꾸뀨끄끼
따□떠□또□뚜뚀뜨띠
빠□뻐뼈뽀뾰뿌쀼쁘삐
싸쌰써쎠쏘쑈쑤쓔쓰씨
짜쨔쩌쪄쪼쬬쭈쮸쯔찌

第三式 (셋째 재)은 된소리를 딴 줄로 잡지 아니하고 그 예사소리의 줄 속에 包含시키되 同一한 홀소리 안에서 된소리를 그 예사소리의 次位에 두는것이니, 다음 같이 된다。

가까갸꺄거꺼겨껴고꼬교꾜구꾸규뀨그끄기끼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다따댜□더떠뎌□도또됴□두뚜듀뚀드뜨디띠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바(빠) 뱌(　) 버(뻐) 벼(뼈) 보(뽀) 뵤(뾰) 부(뿌) 뷰(쀼) 브(쁘) 비(삐)
사(싸) 샤(쌰) 서(써) 셔(쎠) 소(쏘) 쇼(쑈) 수(쑤) 슈(쓔) 스(쓰) 시(씨)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짜) 쟈(쨔) 저(쩌) 져(쪄) 조(쪼) 죠(쬬) 주(쭈) 쥬(쮸) 즈(쯔) 지(찌)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第四式 (넷째 재)은 셋째 재와 같이、同一한 홀소리속에서 된소리의 位置를 그 예사소리의 다음에다가 獨立的으로 認定하지 아니하고、그 예사소리에 全然히 包含시켜 버리는것이니、다음과 같이된다。

가(까) 갸(꺄) 거(꺼) 겨(껴) 고(꼬) 교(꾜) 구(꾸) 규(뀨) 그(끄) 기(끼)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다(따) 댜(　) 더(떠) 뎌(　) 도(또) 됴(　) 두(뚜) 듀(뜌) 드(뜨) 디(띠)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바(빠) 뱌(　) 버(뻐) 벼(뼈) 보(뽀) 뵤(뾰) 부(뿌) 뷰(쀼) 브(쁘) 비(삐)
사(싸) 샤(쌰) 서(써) 셔(쎠) 소(쏘) 쇼(쑈) 수(쑤) 슈(쓔) 스(쓰) 시(씨)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짜) 쟈(쨔) 저(쩌) 져(쪄) 조(쪼) 죠(쬬) 주(쭈) 쥬(쮸) 즈(쯔) 지(찌)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이 第四式은 第三式과 비슷하기는 하지마는、그 辭典에서의 實際의 語彙排列의 順序는 달라지나니、이를테면

셋째 재에 依할것같으면
가、가가……간……강회、강흐리……까다、까불다……깡둥깡둥……꺼지다
와 같이、가頭 語彙가 다 나온 뒤에 까頭·語彙가 나오게 된것이요、

넷째 재(方式)에 依할것같으면
가、까……가가、가깝다……간、깐……강둥하다、깡뚱하다……고이다、꼬이다、고인돌、고임
과 같이、가頭 語彙의 속에 까頭 語彙가 包含되어 間間이 나타나게 된다。곧 된소리의 獨立性을 認定하지 아니하고 그 예사소리의 한 變形으로 보아 極히 그 存在를 輕視한것이니、朝鮮總督府 編纂인 朝鮮語辭典(略號「朝典」以下 倣此)과 께일님의 韓英大字典(略號「韓典」)은 이 第四式을 取하였다。

(ㄴ) 홀소리의 차례

홀소리(母音)에는 訓民正音에서 보인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밖에 또 그것들에 ㅣ를 거듭하여 쓰는것(ㅐㅒㅔㅖㅚㅟㅢㅣ)이 있으며、또 ㅗㅏ의 거듭 ㅜㅓ의 거듭이 있다。그래서 問題는 나거의 位置 問題와 ㅐㅒ……의 位置 問題의 두가지로 나누인다。

먼저 나거의 位置는 다음의 세가지로 잡을수가 있다。

第一方(便宜上 이러한 이름을 붙임) 나거를 本文의 끝에 붙이는 법이니、이는 李朝鮮的으로 一般으로 쓰여오던것이다。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
다댜더뎌도됴두듀드디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
마먀머며모묘무뮤므미
바뱌버벼보뵤부뷰브비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
자쟈저져조죠주쥬즈지
차챠처쳐초쵸추츄츠치
카캬커켜코쿄쿠큐크키
타탸터텨토툐투튜트티
파퍄퍼펴포표푸퓨프피
하햐허혀호효후휴흐히
과궈놔눠돠둬롸뤄뫄뭐봐붜솨숴
와워좌줘촤춰콰쿼톼퉈퐈풔화훠

第二方。나거를 各行의 아래에 붙이는것이니、慶尙道地方에서 이렇게 行한다。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과궈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놔눠
다댜더뎌도됴두듀드디돠둬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롸뤄
마먀머며모묘무뮤므미뫄뭐
바뱌버벼보뵤부뷰브비봐붜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솨숴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와워
자쟈저져조죠주쥬즈지좌줘
차챠처쳐초쵸추츄츠치촤춰
카캬커켜코쿄쿠큐크키콰쿼
타탸터텨토툐투튜트티톼퉈
파퍄퍼펴포표푸퓨프피퐈풔
하햐허혀호효후휴흐히화훠

第三方 나는 ㅗ에 붙이고、거는 ㅜ에 붙이는것이니、「朝典」이 이것을 取하였다。

가갸거겨고과교구궈규그기
나냐너녀노놔뇨누눠뉴느니

다댜더뎌도됴됴두듀듀드디
라랴러려로료료루류류르리
마먀머며모묘묘무뮤뮤므미
바뱌버벼보뵤뵤부뷰뷰브비
사샤서셔소쇼쇼수슈슈스시
아야어여오요요우유유으이
자쟈저져조죠죠주쥬쥬즈지
차챠처쳐초쵸쵸추츄츄츠치
카캬커켜코쿄쿄쿠큐큐크키
타탸터텨토툐툐투튜튜트티
파퍄퍼펴포표표푸퓨퓨프피
하햐허혀호효효후휴휴흐히

다음에 ㅣ뒤거듭소리의 位置에 關하여는 다음의 네 가지의 式이 成立된다。그리고 그 各式에는 먼저의 세 가지의 方이 있어、都合 十 二 方式이 成立된다。

第一式。ㅣ거듭소리(ㅐㅒㅔㅖㅢ……)를 그 本音의 次行으로 잡는것이니、이에는 다시 다음의 세 方이 있다。

第一式의 第一方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개걔게계괴□귀□긔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
내냬네볘뇌□뉘뉴늬
다댜더뎌도됴두듀드디
대□데뎨되□뒤□듸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
래□레례뢰□뤼□믜
마먀머며모묘무뮤므미
매□메몌뫼□뭬□믜
바뱌버벼보뵤부뷰브비
배□베볘뵈□붸뷔븨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
새□세쇄쇠□쉐쉬싀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
애애에예외□웨위의
자쟈저져조죠주쥬즈지
재쟤제졔죄□쭤쥐즤
차챠처쳐초쵸추츄츠치
채챼체쳬최□췌취츼
카캬커켜코쿄쿠큐크기
캐컈케켸쾨□퀘□킈
타탸터텨토툐투튜트티
태□테톄퇴□퉤튀틔
파퍄퍼펴포표푸퓨프피
패□페폐푀□풰퓌픠
하햐허혀호효후휴흐히

해□헤혜회□휘□희
과궈놔눠돠둬롸뤄뫄뭐
괘궤□□돼뒈뢔뤠뫠뭬

第一式의 第二方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과궈
개걔게계괴□귀□긔□괘궤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놔눠
내냬네볘뇌□뉘뉴늬□□□
다댜더뎌도됴두듀드디돠둬
대□데뎨되□뒤□듸□돼뒈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롸뤄
래□레례뢰료뤼뤠뢰□뢔뤠
마먀머며모묘무뮤므미롸뭐
매□메몌뫼□뮈□믜□뫠뭬
바뱌버벼보뵤부뷰브비봐붜
배□베볘뵈□뷔붸븨□봬붸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솨숴
새□세쇄쇠□쉬쉐싀□쇄쉐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와워
애얘에예외왜위웨의□왜웨
자쟈저져조죠주쥬즈지좌줘
재재제졔죄줴쥐쥬직□좨줴
차챠처쳐초쵸추츄츠치촤춰

채챼체쳬최□취췌칙□쵀췌
카캬커켜코쿄쿠큐크키콰쿼
캐컈케켸쾨□퀴□킈□쾌퀘
타탸터텨토툐투튜트티톼퉈
태□테톄퇴□튀퉤틱□퇘퉤
파퍄퍼펴포표푸퓨프피퐈풔
패□페폐푀퓌퓌픽□□퐤
하햐허혀호효후휴흐히화훠
해□헤혜회□휘□희□홰훼

第一式의 第三方

가갸거겨고과교구궈규그기
개걔게계괴괘□귀궤□긔
나냐너녀노놔뇨누눠뉴느니
내냬네볘뇌□□뉘□뉘늬
다댜더뎌도돠됴두둬듀드디
대□데뎨되돼□뒤뒈□듸
라랴러려로롸료루뤄류르리
래□레례뢰뢔뢰뤼뤠뢰□
마먀머며모뫄묘무뭐뮤므미
매□메몌뫼뫠□뮈뭬□믜
바뱌버벼보봐뵤부붜뷰브비
배□베볘뵈뵀□뷔붸뷔븨
사샤서셔소솨쇼수숴슈스시

새□셰쇄쇠쇄□쉬쉐쉬싀
아야어여오와요우워유으이
애얘에예외왜외위웨위의
자쟈저져조좌죠주줘쥬즈지
재쟤제졔죄좨죄쥐줴쥐즤
차챠처쳐초촤쵸추춰츄츠치
채챼체쳬최쵀□취췌취츼
카캬커켜코콰쿄쿠쿼큐크키
캐컈케켸쾨쾌□퀴퀘□킈
타탸터텨토톼툐투퉈튜트티
태□테톄퇴퇘□튀퉤튀틔
파퍄퍼펴포퐈표푸풔퓨□피
패□페폐푀□□퓌풰□픠
하햐허혀호화효후훠휴흐히
해□헤혜회홰□휘훼□희

第二式 ㅣ거듭소리를 十四行의 本文끝에 붙이는것이니 이에도 세가지의 方이 있다。

第二式의 第一方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
다댜더뎌도됴두듀드디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
마먀머며모묘무뮤므미
바뱌버벼보뵤부뷰브비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
자쟈저져조죠주쥬즈지
차챠처쳐초쵸추츄츠치
카캬커켜코쿄쿠큐크키
타탸터텨토툐투튜트티
파퍄퍼펴포표푸퓨프피
하햐허혀호효후휴흐히
과궈놔눠돠둬롸뤄뫄뭐봐붜솨숴……
개걔게계괴□귀□긔
내냬네녜뇌□뉘뉘늬
대□데뎨되□뒤□듸
래□레례뢰료뤼릐릐
매□메몌뫼□뮈□믜
배□베볘뵈□뷔뷔븨
새□세셰쇠□쉬쉬싀
애얘에예외왜위위의
재쟤제졔죄좨쥐쥐즤
채챼체쳬최□취취츼
캐컈케켸쾨□퀴□킈
태□테톄퇴□튀튀틔
패□페폐□푀퓌□픠

해□헤혜회□휘□히
괘궤□□돼뒈뢔뤠뫠뭬……。

第二式의 第二方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과궈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놔눠
다댜더뎌도됴두듀드디돠둬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롸뤄
마먀머며모묘무뮤므미뫄뭐
바뱌버벼보뵤부뷰브비봐붜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솨숴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와워
자쟈저져조죠주쥬즈지좌줘
차챠처쳐초쵸추츄츠치촤춰
카캬커켜코쿄쿠큐크키콰쿼
타탸터텨토툐투튜트티톼퉈
파퍄퍼펴포표푸퓨프피퐈풔
하햐허혀호효후휴흐히화훠
개걔게계괴□귀□긔괘궤
내냬네녜뇌□뉘뉴늬□□
대□데뎨되□뒤□듸돼뒈
래□레례로료루류르리뢔뤠
매□메몌뫼□뮈□믜뫠뭬
배□베볘뵈□뷔뷰븨붸봬
새□세쇄쇠□쉬슈스쇄쉐
애얘에예외요위유의왜웨
재쟤제졔죄쥐쥬즤좨줴
채챼체쳬최□취츄츼쵀췌
캐컈케켸쾨□커□킈쾌퀘
태□테톄퇴□튀튜틔퇘퉤
패□페폐□푀퓌□픠□퐤
해□헤혜회□휘□희홰훼

第二式의 第三方

가갸거겨고과교구궈규그기
나냐너녀노놔뇨누눠뉴느니
다댜더뎌도돠됴두둬듀드디
라랴러려로롸료루뤄류르리
마먀머며모뫄묘무뭐뮤므미
바뱌버벼보봐뵤부붜뷰브비
사샤서셔소솨쇼수숴슈스시
아야어여오와요우워유으이
자쟈저져조좌죠주줘쥬즈지
차챠처쳐초촤쵸추춰츄츠치
카캬커켜코콰쿄쿠쿼큐크키
타탸터텨토톼툐투퉈튜트티
파퍄퍼펴포퐈표푸풔퓨프피
하햐허혀호화효후훠휴흐히

개걔게계괴괘□뒤뒈□듸
내냬네비뇌□□뉘□뉘늬
대□데뎨되돼□뒤뒈□듸
래□레례뢰뢔뢰뤠□릐
매□메몌뫼뫠□뮈뭬□믜
배□베볘뵈봬□뷔붸뷔븨
새□세쇄쇠쇄□쉬쉐□싀
애얘에예외왜외위웨위의
재쟤제졔죄좨죄쥐줴쥐직
채챠체쳬최쵀□취췌취츼
캐캐케켸쾨쾌□커퀘□킈
태□테톄퇴퇘□튀퉤튀틔
패□페폐□□퓌퓌□픽
해□헤혜회홰□휘훼□희

第三式。이는 ㅣ거듭소리를 그 본소리字의 다음마다에 그 獨立的位置를 認定하는것이니、이에도 다음의 세가지의 方이 可能하다。

第三式의 第一方

가개갸걔거게겨계고괴교□구귀규□그긔기
나내냐냬너네녀비노뇌뇨□누뉘뉴□느늬니
다대댜□더데뎌뎨도되됴□두뒤듀□드듸디
라래랴□러레려례로뢰료뢰루뤼류뤼르릐리
마매먀□머메며몌모뫼묘□무뮈뮤□므믜미
바배뱌□버베벼볘보뵈뵤□부뷔뷰뷔브븨비
사새샤□서세셔셰소쇠쇼□수쉬슈□스싀시
아애야얘어에여예오외요외우위유위으의이
자재쟈쟤저제져졔조죄죠죄주쥐쥬쥐즈직지
차채챠챠처체쳐쳬초최쵸□추취츄취츠칙치
카캐캬캐커케켜켸코쾨쿄□쿠퀴큐□크킈키
타태탸□터테텨톄토퇴툐□투튀튜튀트틔티
파패퍄□퍼페펴폐포□표푀푸퓌퓨□프픽피
하해햐□허헤혀혜호회효□후휘휴□흐희히
과괘궈궤놔□눠□……。

第三式의 第二方

가개거게겨계고괴교□구귀규□그긔기과괘궈궤
나내너네녀비노뇌뇨□누뉘뉴뉘느늬니놔□눠□
다대더데뎌뎨도되됴□두뒤듀□드듸디돠돼둬뒈
라래러레려례로뢰료뢰루뤼류뤼르릐리롸뢔뤄뤠
마매머메며몌모뫼묘□무뮈뮤□므믜미뫄뫠뭐뭬
바배버베벼볘보뵈뵤□부뷔뷰뷔브븨비봐봬붜붸
사새서세셔셰소쇠쇼□수쉬슈□스싀시솨쇄숴쉐
아애어에여예오외요외우위유위으의이와왜워웨
자재저제져졔조죄죠죄주쥐쥬쥐즈직지좌좨줘줴
차채처체쳐쳬초최쵸□추취츄취츠칙치촤쵀춰췌
카캐커케켜켸코쾨쿄□쿠퀴큐□크킈키콰쾌쿼퀘
타태터테텨톄토퇴툐□투튀튜튀트틔티톼퇘퉈퉤

파패퍼페펴폐포□표푀푸퓌퓨□프픠피퐈□풔퐤
하해허헤혀혜호회효□후휘휴□흐희히화홰훠훼

第三式의 第三方

가개거게겨계고괴과괘구귀궈궤규□그긔기
나내너네녀녜노뇌놔 누뉘눠□뉴뉘느늬니
다대더데뎌뎨도되돠돼두뒤둬뒈듀□드듸디
라래러레려례로뢰롸뢔루뤼뤄뤠류륀르릐리
마매머메며몌모뫼뫄뫠무뮈뭐뭬뮤□므믜미
바배버베벼볘보뵈봐봬부뷔붜붸뷰□브븨비
사새서세셔셰소쇠솨쇄수쉬숴쉐슈□스싀시
아애어에여예오외와왜우윅워웨유윈으의이
자재저제져졔조죄좌좨주쥐줘줴쥬쥔즈즤지
차채처체쳐쳬초최촤쵀추취춰췌츄츤츠츼치
카캐커케켜켸코쾨콰쾌쿠퀴□퀘큐□크킈키
타태터테텨톄토퇴톼퇘투튀퉈퉤튜튄트틔티
파패퍼페펴폐포□퐈□푸퓌풔퓌퓨□프픠피
하해허헤혀혜호회화홰후휘훠훼휴□흐희히

第四式。이는 第三式에서와 같이、ㅣ거듭소리의 位置를 그 本音의 다음마다에 獨立的으로 認定하지 아니하고、다만 그 本音 속에 包含시켜버리는것이니、이는 마치 初聲의 第四式과 同一의 方式이니라。그래서 이에도 세 가지의 方이 있다。

第四式의 第一方——이는 第三式의 第一方의 ㅣ거듭소리를 括弧안에 집어넣은것이 되나니、이에는 다만 한 두줄의 보기만 들면 다음과 같다。

가(개)갸(걔)거(게)겨(계)고(괴)교( )구(귀)규( )
그(긔)기
나(내)냐(냬)너(네)녀(녜)노(뇌)뇨( )누(뉘)뉴(뉘)
느(늬)니
다(대)댜( )더(데)뎌(뎨)도(되)됴( )두(뒤)듀( )
드(듸)디
라(래)랴( )러(레)려(례)로(뢰)료(료)루(뤼)류(륀)
르(릐)리

第四式의 第二方——이것은 第三式의 第二方에 비슷함이 앞의것에서와 같다。

가(개)갸(걔)거(게)겨(계)고(괴)교( )구(귀)규( )
그(긔)기과(괘)궈(궤)
나(내)냐(냬)너(네)녀(녜)노(뇌)뇨( )누(뉘)뉴(뉘)
느(늬)니놔( )눠( )
다(대)댜( )더(데)뎌(뎨)도(되)됴( )두(뒤)듀( )
드(듸)디돠(돼)둬(뒈)
라(래)랴( )러(레)려(례)로(뢰)료(료)루(뤼)류(륀)
르(릐)리롸(뢔)뤄(뤠)

第四式의 第三方——이는 第三式의 第三方의 ㅣ거듭소리를 括弧안에 넣은것과 같다。

가(개)갸(걔)거(게)겨(계)고(괴)과(괘)교( )구(귀)

궈(궤)규(　)그(긔)기
나(너)냐(녀)너(네)녀(녜)노(뇌)놔(　)뇨(　)누(뉘)
눠(　)뉴(뉘)느(늬)니
다(대)댜(　)더(데)뎌(뎨)도(되)돠(돼)됴(　)두(뒤)
둬(뒈)듀(　)드(듸)디
라(래)랴(　)러(레)려(례)로(뢰)롸(뢔)료(뢰)루(뤼)
뤄 뤠)류(뤄)르(릐)리

이 第三式과 第四式은 거의 같은것 같이 보이지마는, 그 實際의 語彙排列에 있어서 매우 달라짐이 있음은 앞의 初聲의 경우에서와 같다。

(ㄷ) 바침의 順序

바침의 順序는 初聲의 順序와 같이하면 그만이라 할는지 모르지마는, 바침에는 初聲에는 없던 異音並書의 것이 있기때문에 그리 簡單히 一言으로 處理하기 어려운 點이 있다。

먼저 同字並書(ㄲ 된소리)와 異字並書(ㄳ ㄵ …… 따위)와의 位置關係가 두가지가 있다。

第一方——同字並書를 다 든 뒤에 異字並書를 벌리는것。

ㄱㄲㄳㄴㄵㄶㄷㄹㄺㄻㄼㄽㄾㄿㅀㅂ

第二方——同字並書의 다음의 그 單字로 머리를 삼은 다른 덧거듭소리를 벌리는것。

ㄱㄲㄳㄴㄵㄶㄷㄹㄺㄻㄼㄽㄾㄿㅀㅂㅅㅆㅇㅈㅊㅋㅌㅍㅎ

다음에 이 並書(同字並書와 異字並書를 並稱함)와 單字와의 位置關係로 말미암아, 大略 다음의 세가지의 式이 成立한다。

第一式——이는 單字를 다 벌린 뒤에 並書字를 벌리는것이니, 이에 다시 두가지의 方이 있다。

第一式의 第一方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ㄲㄳㄵㄶㄺㄻㄼㄽㄾㄿㅀㅃㅆ

第一式의 第二方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ㄲㄳㄵㄶㄺㄻㄼㄽㄾㄿㅀㅃㅆ

第二式——이는 並書字를 單字의 다음에 獨立法位置를 認定하는것이니, 이에도 두가지의 方이 있다。

第二式의 第一方

ㄱㄲㄴㄷㄹㅁㅂㅅㅆㅇㅈㅊㅋㅌㅍㅎㄳㄵㄶㄺㄻㄼㄽㄾㄿㅀㅃ

第二式의 第二方

ㄱㄲㄳㄴㄵㄶㄷㄹㄺㄻㄼㄽㄾㄿㅀㅂㅃㅅㅆㅇㅈㅊㅋㅌㅍㅎ

第三式——이는 並書字를 각각 單字의 다음에 두되, 그 獨立的 位置를 認定하지 아니하고, 그 單字의 속에 包含시켜 버리는것이니, 이에는 第一方은 成立되지

않고、다만 第二方만 成立한다。

ㄱ(ㄲ、ㄳ)ㄴ(ㄵ、ㄶ)ㄷㄹ(ㄺ、ㄻ、ㄼ、ㄽ、ㄾ、ㄿ、ㅀ)ㅁㅂ(ㅄ)ㅅㅇㅈㅊㅋㅌㅍㅎ

(ㄹ) 音節式의 概括

以上에 初聲、中聲(홀소리)、終聲(바침)의 세 部類에 分하야、그 順序決定의 可能한 方式을 略說하였다。그런데 그 順序決定의 方式이 初聲에서 넷이요。中聲에서 열둘이요、終聲에서 다섯이나 된다。그러나、이는 결코 可能한 方式을 일부러 꾸며 든것은 아니다。만약 일부러 여러가지로 꾸미기로 한다면、그 方式의 수효는 實로 數十가지가 될것이다。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만약 初聲 順序에서 ㄱ 普通學校 敎科書에서 하는 아行을 첫줄로 삼는 方式을 더하고、바침의 順序를 좀 더 類別하기만 하더라도、그 方式의 수가 相當히 불을것이다。

이제 다만 以上에서 試驗해온 方式에만 依하더라도、初聲(넷)、中聲(열 둘)、終聲(다섯)을 合하야 모두 二十一 方式이나 된다。그뿐아니라 이제 만약 (實際的으로는 그리 안할수가 없는것이다)。이 세가지를 서로 組合한다면、初聲과 中聲에 結合方式이 4×12=48 곧 마흔 여덟이요、이에 바침까지 結合시킨다면 48×5=240 곧 二百 四十이나 된다。참 어지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 다음에 字母式에 依한 順序는 어떠한가。우리는 考察의 눈을 그리로 굴리기로 하자。

第二、字母式 排列順序

字母式으로 語彙를 排列함에 있어서는、첫째 問題가 될것은 字母(○○)의 數와 順序를 어떻게 할것인가이다。그러나 우리는 이 問題를 간단히 處理할수가 있다。곧 朝鮮語學會에서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 決定한바를 좇으면 그만이다。곧 한글의 字母의 數는 二十 四字로 하고、그 順序는 다음과 같이 定하였다。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

이 밖에 ㄲㄸㅃㅆㅉㅐㅒㅔㅖㅘㅙㅚㅝㅞㅟㅢ 따위는 다 한낱의 字母로 認定하지 아니하고、單一한 字母의 어울려서 된것으로 보았다。

이제 이 二十 四 字母의 順序에 依하야、辭典에 말수(語彙)를 벌리는 方法은 ㄱ 英、獨、佛 等의 辭典에서 二十 六 字母에 依하는 方法과 꼭 한가지다。곧 한낱 말의 構成 字母의 數가 다섯이라 하면、그 字母의 차지하는 자리도 다섯이 된다。그 낱낱의 자리마다 그 全 字母順에서 가장 앞서는 字母가 오는 낱말이 앞에 가게 된다。그래서 그 第一位에 ㄱ이 오는 말이 가장 먼저 올것이요、그 第二位에도 ㄱ이 오

는 말이 가장 앞설것이되, 만약 ㄱ이 오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ㄱㄴㄷ르……의 順序에 依하야 앞선 字母를 가진 말이 놓일것이다。第三位、第四位、第五位도 第二位에서와 같이 된다。그리하여 第一位에서 서로 같은 數字의 말은 그 第二位에서 先後의 順序가 決定되고, 그 第二位까지 같은 數字의 말은 다시 第三位에서 그 先後의 順序가 決定되고, 以下 같은 方法에 依하야 모든 말수가 다 각각 제 자리를 獲得하게 된다。이를테면 다음과 같다。(소리 없는 ㅇ은 없는것으로 봄)

ㄱ (ㄱ)
ㄲ (ㄲ)
깍깍 (ㄲㅏㄲㅏㄱ)
깎기다 (ㄲㅏㄲㄲㅣㄷㅏ)
깎다 (ㄲㅏㄲㄷㅏ)
까꾸 (ㄲㅏㄲㅜㅣ)
깍다귀 (ㄲㅏㄱㄷㅏㄱㄱㅣ)
깍둑이 (ㄲㅏㄱㄷㅜㄱㅣ)
깍쟁이 (ㄲㅏㄱㅉㅐㅇㅣ)
깍지 (ㄲㅏㄱㅈㅣ)
깐 (ㄲㅏㄴ)
깐보다 (ㄲㅏㄴㅂㅗㄷㅏ)
깐작거리다 (ㄲㅏㄴㅈㅏㄱㄱ

까막까치 (ㄲㅏㅁㅏㄱㄲㅏㅊ ㅣ)
까마잡이(ㄲㅏㅁㅏㅈㅏㅂㅣ)
까마종이(ㄲㅏㅁㅏㅈㅗㅇㅣ)
까마귀 (ㄲㅏㅁㅏㄱㅜㅣ)
깜앟다 (ㄲㅏㅁㅏㅎㄷㅏ)
、、、 (、、、)
、、、、 (、、、、)
까투리 (ㄲㅏㅌㅜㄹㅣ)
까풀 (ㄲㅏㅍㅜㄹ)
깨 (ㄲㅐ)
깨닫다 (ㄲㅐㄷㅏㄷㅏ)
깨치다 (ㄲㅐㅊㅣㄷㅏ)
깨트리다(ㄲㅐㅌㅡㄹㅣㄷㅏ)
깨어지다(ㄲㅐㅇㅓㅈㅣㄷㅏ)
깨우다 (ㄲㅐㅜㄷㅏ)
、、、、 (、、、、)
、、、 (、、、)
가 (ㄱㅏ)
각각 (ㄱㅏㄱㄱㅏㄱ)
가깝승 (ㄱㅏㄲㅏㅂㅈㅡㅇ)
가까스로(ㄱㅏㄲㅏㅅㅡㄹㅗ)
각거 (ㄱㅏㄱㄱㅓ)

각금 (ㄱㅏㄱㄱㅡㅁ)
각기 (ㄱㅏㄱㄱㅣ)
각다귀 (ㄱㅏㄱㄷㅏㄱㄱㅣ)
각방 (ㄱㅏㄱㅂㅏㅇ)
각씨 (ㄱㅏㄱㅆㅣ)
각침 (ㄱㅏㄱㅊㅣㅁ)
가가 (ㄱㅏㄱㅏ)
가게 (ㄱㅏㄱㅔ)
가고 (ㄱㅏㄱㅗ)
가관 (ㄱㅏㄱㅘㄴ)
가구리 (ㄱㅏㄱㅜㄹㅣ)
가권 (ㄱㅏㄱㅝㄴ)
간간 (ㄱㅏㄴㄱㅏㄴ)
간나희 (ㄱㅏㄴㄴㅏㅎㅡㅣ)
간달 (ㄱㅏㄴㄷㅏㄹ)
간살 (ㄱㅏㄴㅅㅏㄹ)
간장 (ㄱㅏㄴㅈㅏㅇ)
간하다 (ㄱㅏㄴㅎㅏㄷㅏ)
가다듬다 (ㄱㅏㄷㅏㄷㅡㅁㄷ ㅏ)
가락 (ㄱㅏㄹㅏㄱ)
감 (ㄱㅏㅁ)
감기 (ㄱㅏㅁㄱㅣ)

감농 (ㄱㅏㅁㄴㅗㅇ)
감당 (ㄱㅏㅁㄷㅏㅇ)
감발 (ㄱㅏㅁㅂㅏㄹ)
감사 (ㄱㅏㅁㅅㅏ)
감창 (ㄱㅏㅁㅊㅏㅇ)
감투 (ㄱㅏㅁㅌㅜ)
가마 (ㄱㅏㅁㅏ)
가망 (ㄱㅏㅁㅏㅇ)
가물 (ㄱㅏㅁㅜㄹ)
가미 (ㄱㅏㅁㅣ)
갑 (ㄱㅏㅂ)
갓 (ㄱㅏㅅ)
가소 (ㄱㅏㅅㅗ)
강 (ㄱㅏㅇ)
갖다 (ㄱㅏㅈㄷㅏ)
가치 (ㄱㅏㅊㅣ)
가하다 (ㄱㅏㅎㅏㄷㅏ)
개 (ㄱㅐ)
객군 (ㄱㅐㄱㄱㅜㄴ)
객담 (ㄱㅐㄱㄷㅏㅁ)
객지 (ㄱㅐㄱㅈㅣ)
개가 (ㄱㅐㄱㅏ)
개똥버레 (ㄱㅐㄸㅗㅇㅂㅓㄹㅔ)
개미 (ㄱㅐㅁㅣ)
개시 (ㄱㅐㅅㅣ)
갱소년 (ㄱㅐㅇㅅㅗㄴㄴㅕㄴ)
개축 (ㄱㅐㅊㅜㄱ)
개와 (ㄱㅐㅘ)
개우다 (ㄱㅐㅜㄷㅏ)
개인 (ㄱㅐㅇㅣㄴ)
갸륵하다 (ㄱㅑㄹㅡㄱㅎㅏㄷㅏ)
걱정 (ㄱㅓㄱㅈㅓㅇ)
게 (ㄱㅔ)
고기 (ㄱㅗㄱㅣ)
구름 (ㄱㅜㄹㅡㅁ)
극진하다 (ㄱㅡㄱㅈㅣㄴㅎㅏㄷㅏ)
기름 (ㄱㅣㄹㅡㅁ)
나 (ㄴㅏ)
낚시 (ㄴㅏㄲㅅㅣ)

또 스물 닉자의 차례에서, 홀소리를 닿소리의 앞에 두자 할수도 있다。이는 통일안대로 닿소리를 앞에 두면, 辭典의 첫머리에 된소리로 된 말이 예사소리로 된 말보다 먼저 나타나는것이 보기 싫다는것과 바침 없는 말이 바침 있는 말보다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것이 그 利點이란 理由에서」 하는 말이다。그러나, 그에 對하야, 그렇게 하면, (1)각 닿소리가 初聲으로 쓰임보다 바침으로 쓰임이 먼저 나타나게 되며, (2)각 홀소리에 ㅣ가 거듭하여서 된 거듭소리 (ㅐ ㅒ ㅔ ㅖ)로 된 말이 그 본디의 字母(ㅏ ㅑ ㅓ ㅕ)로 된 말보다 많이 앞에 나타나게 되며, (3)그뿐아니라, 그것은 訓民正音과 통일안의 차례(닿소리 앞서고 홀소리 뒤서기)에도 어그러지며, (4)「낫놓고 ㄱ자도 모른다」는 格言이 一般的 常識과도 틀리게 된다。그래서 特別히 그리할 必要를 認定하지 아니한다。

第三、音節式과 字母式의 比較

이제 音節式과 字母式과의 差異와 優劣을 比較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첫째 音節式은 在來의 本文(反切)에 依한이만큼, 本文에 依하야 조선글을 배운 舊式人의 귀에 親近 又는 當然의 感을 줄것이다。그러고 바침까치 같은 音節(낱내)의 文字가 나란하 벌리어있는것은 整齊

의 感을 줄것이다。이것이 音節式의 特色인 同時에、唯一의 長處이라 하겠다。(그러나 初聲의 順序를 그 第四式에 依한 辭典「朝典」과「韓典」에서 꼭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있다)

이에 對하야 字母式은 音節을 分解한 字母에 依한 것이기때문에、分解되지 아니한 音節式 文字를 如前히 쓰면서 그 順序만은 分解的으로 모아야 함이 거북한 느낌을 주며、또 外形上으로 보아 바침 없는 音節과 바침 있는 音節이 서로 섞여 가면서 나란히 벌리어 있는것은 音節을 한 單位文字로 보는 眼目에 서투른 感을 줄것이다。

이 比較의 第一點에서는、얼른 보면、音節式이 字母式보다 나은듯 하다。그러나 이는 詳細히 考察하면 결코 眞正한 優點이 되지 못한다。音節式의 利點으로 생각되는 親近과 整齊는、다음의 比較에서 차차 밝아지는바와 같이、다만 一見의 外樣에 그치는것이요、探索上의 無正道 混亂性은 그 外見上의 利點을 壓倒하고 말것이다。

字母式의 서투름과 不整齊는 新敎育을 받아 英語辭典이나 찾을줄을 아는 사람에게는——아니 그보다 그리 整理된 辭典에 依하야 조선말을 공부하게 될 未來의 조선사람에게는 결코 問題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아무리 音節에 依한 學習을 한 舊式人일지라도 조선글자를 쓸적에 그것을 分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며、또 分析하기에 큰 苦痛를 느낄 사람은 없을것이다。더구나 이러한 分析을 번번히 해야만 할것도 아니요、서령 다소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些少의 수고가 幾百의 수고를 節約할수 있을것은 確定한 일인즉、그 分析的 檢索의 수고는 결코 그리 대단한 不利點이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2) 音節式은、우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初中終 三部으로 갈라 보아도 都合 二十 一 方式이 있어、매우 繁多함에 對하야、字母式은 다만 한낱의 式이 있어 매우 簡明하다。

나는 앞의 (1)의 比較에서 音節式에는 親近感을 주는 利點이 있다고 하였다。그러면 이제 이 二十 一 方式 가운데에 어느 方式이 가장 親近하고 容易한것인가。그 사이에는 결코 顯著한 差異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것이다。二十 一 方式이 다 親近하다 할것같으면、그 親近에 依한 選擇이 一義的으로 明確히 決定되지 아니하기때문에 實際의 檢索에 있어서는 더욱 不利하야 그 親近할듯 하던 外樣이 親近하지 못한 實情으로 變하고 말것이다。그 뿐아니라、그 어느 方式 한가지씩을 選定한다 할지라도、그 方式의 組織이 浩繁하야 容易히 記憶하기도 어렵다。만약 文字敎育을 그리한 浩繁한 音節文字的 方式에 依한다면 좀 낫겠지마는、

이와 같은 文字敎育은 오늘의 進步된 文字 及 言語敎授의 方法論에 비추어보아 一分의 價値가 없는것이다。(이 敎授法問題에 關하여는 여기서 더 들어가지 아니하기로 함)

이에 對하야、字母式은 서령 親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그것이 確定不變의 惟一의 順序에 依한것이기때문에、얼마아니하여서 親近해질것도 또한 當然의 勢라 하겠다。

(3) 사람이 ᄀᆡ 머리속에 떠오르는 말을 辭典에서 찾아내기가 音節式 排列보다 字母式 排列이 數倍나 便利하다。

이것은 以上의 叙述로써 넉넉히 首肯할 일이다。이ᄀᆡ 다시 繁雜한 理論을 開陳하는것보다 손쉽게 한두 實例로써 이를 比較하면 환할것이다。

이를테면 『없다』(無)를 머리속에 생각하고 (마춤법까지 一定한것이 되지는 못하고 다만 말로만 『없다』를 생각함이 一般人에게 예사이다)、그것을 말광에서 찾기로 하자。그 사람이 『업다』에 가서 보면 그러한 뜻(無)을 말하지 아니하였을터이니、그는 그만 失望하든지、그렇잖으면 다시 『없다』를 찾을것이다。이것을 이ᄀᆡ 音節式에 依한 『朝典』과 『韓典』에서 보건대、『없다』는 『업다』에서 第百인 『엉터리』의 다음에 있거나 (그 책이 두자바침을 採用하되、旣述의 第一式의 第一方이나 第二方、第二式의 第一方에 依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또는 第二十 五인 『업히다』의 다음에 오거나(旣述의 第二式 第二方에 依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한다。이에 對하야 만약 字母式에 依하야 그 책에 『없다』를 挿入하였다고 가정할것같으면、『없다』를 『업다』에서 겨우 第六位인 『업박잡박』의 다음에서 찾아낼수가 있을것이다。(다만 音節式排列에서도 만약 바침의 順序를 그 第二式 第一方이나 第三式에 依하는 경우에만 字母式에서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러나、이와 같은 풀이씨(用言)의 줄기(語幹)의 끝의 바침에서의 兩式의 差異는 그리 대단한것이 아니라 할수 있다。音節式의 不便은 其他의 바침에서 顯著히 나타나는것이다。이를테면 『가리마』(머리털을 가르는 자리)란 말을 찾자면 音節式排列에서는

1、가리마 2、갈이마 3、가림아 4、갈임아

의 네군데(個處)에나 가서 찾아야 할것이지마는、字母式排列에서는 그 사람이 綴字法은 네가지 中에 어느것으로 생각하든지간에 한번 찾아가면 一定한 자리에서 찾아내고 말것이다。만약 그 一定한 자리에 없을것같으면 그 말이 그 辭典에 실리지 아니한것으로 斷定할수 있게 된다。그러나、音節式에서는 設令 앞의 네가지의 자리에 가서 찾아 보아도 없는 경우에는 그 缺落을 斷定하기 어려워 다시 他處를 再檢 三檢하게

되여、한 말을 찾기에 實로 不少한 時間과 莫大한 煩惱를 느끼게 될것이다。事實上 우리 朝鮮語學會員中 가장 많이 辭典을 親하는분으로서 이『가리마』를『朝典』서 能히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實例까지 있다。이는『가리마』가 아니요『갈이마』로 찾아야 할것을 想及하지 못한때문이었다 한다。(「朝典」에서는「가리마」에서「갈이마」까지에 十頁이 隔하였고「韓典」에서는 二十五頁이 隔하여있다)

그래도 이『가리마』와 같이、三 音節 單語에서는 그 경우가 간단하지마는、만약 四 音節의 單語(나부락이)가 된다면、그 경우가

1、나부라기 2、납우라기 3、나불아기 4、나부락이 5、납을아기 6、나불악이 7、납을악이

等으로 될것이니、辭典編纂者의 心中을 알아맞히기 外에는、또는 僥倖히 偶發得中을 하기 外에는 참 千辛萬苦를 할것이다。

要컨대、音節式은 쉬운듯하되 그 實은 극히 어려우며、字母式은 좀 서투른듯하되 그 實은 극히 쉽다。이를 譬해 말하자면、盜難物을 찾기에 있어서 路傍卜者의 점괘에 依하야 之東之西하는것은 音節式이요、紙上에 남은 盜賊의 指紋으로 말미암아 그 正體를 잡고 그가 숨어 있는 그 本籍地로 찾아가는것은 字母式이라 하겠다。

第四、結論

우리는 위에서 그 어수선하고 複雜한 音節式에 比하야 簡單明瞭한 字母式이 그 順序의 一定不變함과 檢索의 正確容易함을 깨달았다。이에 나는 우리 조선말의 辭典에서의 語彙의 排列順序는 字母式을 採用함이 可하다는 結論을 내리는것이 그리 妄斷이 아닐줄을 믿는다。

이 結論은 다만 上來의 說明과 比較로 보아서 正當할뿐 아니라、다시 나아가아 한글에 對한 根本的 見解로 보아 더욱 合理的임을 斷言할수 있다。우리의 한글은 결코 커 孤陋한 管見者가 主張하는바와 같이、音節文字(낱내글자)가 아니요、우리 사람뿐 아니라、한번 조선의 글과 말을 硏究해본 世界의 모든 學者들이 異口同聲으로 稱頌하는바와 같이、世界文字中에서도 가장 新式이요 가장 進步的인 알파벧式 文字(字母文字)이다。이렇듯 世界 共認의 字母文字인 한글은 그 本質에 適應한 字母式 排列로 말미암아서만 비로소 그 二十四字의 靈妙한 機能이 自由스럽게 離合的 運用을 하게 되어、數十萬 數百萬의 語彙가 一絲不亂하게 一目瞭然하게 整頓될것이다。그러므로、字母式排列은 다만 便宜的으로만이 아니라、本質的으로 合當한것이라 아니할수 없다。만약 이러한 한글을 音節式으로 整理한다면 이

는 마치 千里馬로써 荷車를 끌게 하고서 滿足함과 다름이 없는 얼빠진 짓일것이다。

그뿐 아니라、이 至簡至妙한 二十 四字의 한글의 性能은 멀지 않은 將來의 橫書式으로——純然한 字母式綴字法으로까지 發展하고야 말것이다。(그 理論的 根據는 여기서는 言及하지 아니하기로 함) 그리하여 將來의 朝鮮文化의 躍進에 至要한 구실(役割)을 할것이다。그러한 즉、字母式 排列은 한글의 本質的 發展의 理想과도 一致하야、오늘에 한번 確定하면、後日에 如何한 飛躍的 發展이 생기더라도 결코 다시 고칠 必要가 없을것이다。

다시 要約하노니、語彙排列의 順序를 字母式으로 함은 다만 오늘의 實用上 便宜에 有利할뿐 아니라、그 靈妙한 本質에 適合한 萬代不變의 基礎를 닦는 가장 科學的 方法이다。

佛敎大辭典 完成

文學博士 望月信亨氏(六十八歲)의 三十年間 熱誠에 依하여 完成된 佛敎大辭典의 原稿는 四百字박이 三萬 五千頁의 大原稿로서 佛敎語의 一切를 網羅하여 一一이 그 出典을 明示하고、梵語、西藏語 巴梨語의 原語가 添附되어 있다。

望月博士가 이 著述에 着手하기는 宗敎大學의 敎授로 있던 明治 三十九年이었다。當時에는 佛敎辭典은 一冊도 없었는데、書肆 金尾文淵堂에서 鈴木暢行氏에게 佛敎辭典 著述을 請託한것이 動機가 되어 同氏는 望月 博士를 適任者로서 紹介하였었는데、文淵堂의 그 權利를 引繼한 小島武揚堂에서 겨우 一千페지의 單卷과 附錄으로 된 佛敎大年表를 出版할뿐으로서 그만 두書肆가 다 經營困難으로 一時 休止할수밖에 없게 되었었다。

이에 同情한 財團法人 啓明會에서 大正 元年부터 三年동안 年額 二千圓의 補助를 하게 되고、또 몇몇 友人의 發起로 故 村上專精 博士를 會長으로 後援會를 組織하여 一人 五十圓씩 二百人이 一萬圓을 醵金하게 되고、三年前에는 匿名人으로부터 二千圓을 寄贈한 일까지 있었다。그러나 이것으로도 不足하므로 望月 博士는 다시 所有品을 賣却하며、知人들에게 몇千圓의 借金을 하며、昭和 元年에는 博士의 事業에 共鳴하여 現在까지 略少한 報酬로서 즐거이 獻身勤勞하여온 十六人의 篤學同志들이 參加하여 爾來 十餘年을 지냈다。

望月 博士는 大正大學에서 淨土學을 講義하는 外는 거의 모든 會合이나 面會를 謝絶하고 寢食을 잊고 編纂에 專力하여왔다。그사이에는 過度한 勤勞로 因하여 病床에 눕게 된 때도 있었다。

처음으로 同博士가 椎敲에 椎敲를 더하여 學的良心으로 始終一貫한 佛敎大辭典은 이에 이르러 世界的 著書로 되었다。

朝鮮語 單語 成立의 分界線

李 克 魯

朝鮮語는 아직 單語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그래서 各人各色으로 아무 標準 없이 함부로 띄어 쓴다。그런데、辭典 編纂을 하는데에는 이 單語 標準 問題가 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그래서 이제 品詞 分類論만은 다음 機會로 밀우고、그 밖의 몇 가지를 들어서 論하고저 한다。

一、冠形詞와 接頭語와 複合名詞와의 각기 性質과 範圍。

이것을 밝히기 爲하야 다음과 같은 定義를 내고 種類를 갈라 말한다。

(1)、冠形詞는 모든 名詞 위에서 토가 없이 쓰이는 形容語이다。例를 들면

새、이、그、저、요、고、조、어느、무슨、웬、첫、한、두、쉬、네。

(2)、接頭語는 冠形詞와 비슷하되、모든 名詞에 두루 쓰이지 아니하는 말이다。例를 들면

메(조)、찹(쌀)、민(대가리)、대(번)、맨(손)、단(벌)、얼(개화군)、핫(바지)、당(사향)、왜(감자)、양(붕투)、매(달)、건(주정)、강(다짐)

(3)、合成語는 大體로 結合된 各個 單語의 뜻 以外에 다른 뜻을 이룬 말이므로、各個 單語의 뜻을 알아도 이 合成된 語意를 알수 없는것이다。例를 들면

문고리、빈대코、가죽신、눈물(淚)、종밥、칼춤、두부집 칼집、흙손、안경다리、손등、모래밭。

但 各個 單語의 뜻만으로 結合된 말이라도 익어서 한 말과 같이 쓰이는것은 合成語로 다룬다。例를 들면 앞뒤、아래위、대여섯、바지저구리、손발、개돼지。

冠形詞는 本質的과 轉成的이 있는데、本質的에는 數詞的과 形容詞的이 있고、轉成的에는 數詞的과 名詞的이 있다。

本質的으로 된 數詞的 冠形詞는 첫、한、두、서、석、세、너、넉、네、닷、댓、엿、예、스무、왼、여러、모든等이요。

本質的으로 된 形容詞的 冠形詞는 새、수、암、어느、무슨、웬、이、그、저、요、고、조、풋、홋、겹、덧、골、말、참、거짓、공、等이다。

轉成的으로 된 數詞的 冠形詞。일곱 以上의 모든 數

詞는 그대로 冠形詞가 되고 다섯、여섯만은 本質的、數冠形詞가 따로 있으나 그것과 通用이 된다。例를 들면

다섯 말=닷 말、여섯 되=엿 되。

轉成的으로 된 名冠的 冠形詞는 우의 名詞가 아래 名詞의 所有的 關係를 가지고 쓰이는것이다。우리가 흔히 이것을 所有格 토 「의」가 줄었다고 解釋하여왔다。그러나、조선말에 훌륭한 冠形語라는 品詞 形式이 있으니、그 品詞로 轉成되었다고 푸는것이 훨신 便하고 또事實일것이다。例를 들면

엿 장사、고기 장사、나무 장사、술 장사、밤 장사、종이 장사、붓 장사。

소 가죽、개 가죽、말 가죽、돼지 가죽、너구리 가죽、여우 가죽。

밥 그릇、국 그릇、김치 그릇、나물 그릇、물 그릇、장 그릇。

二、數詞의 單語。 이것은 四位一單으로 만드는것이 合理하다。곧 單十百千、萬十萬百萬千萬、億十億百億千億、兆十兆百兆千兆로 할것이다。이에 依하야 쓴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스물아홉 설흔 설흔하나 설흔둘 설흔셋……설흔아홉 마흔、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마흔아홉 쉰 쉰하나 쉰둘 쉰셋……쉰아홉 예순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셋……예순아홉 일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일흔아홉 여든 여든하나 여든둘 여든셋……여든아홉 아흔 아흔하나 아흔둘 아흔셋……아흔아홉 백 백하나 백둘……백열 백열하나 백열둘……백열아홉 백스물 백스물하나 백스물둘……백스물아홉 백설흔……백마흔……백쉰 백예순……백아흔……백아흔아홉 이백 이백하나 이백둘……삼백……삼백아홉……사백……구백 구백하나……구백아흔아홉 일천 일천하나……일천열둘……일천구백아흔아홉 이천……구천구백구십구 만 삼천오백칠십이억 오천육백팔십삼만 구천이백열아홉。

이와 같이 각각 한 單語가 될것이다。

三、命數辭의 獨立性。 命數辭는 數冠形詞 밑에 쓰이는 名詞이다。그러므로、딴 單語로 쓰야 된다。命數辭의 例는 다음과 같다。

섬 말 되 홉
돈(噸) 근 양(兩) 컨 푼
필 자 치 이(里) 마일 미돌
뭇 갓 두름 떼 쾌 동 통
단 다발 바리 짝 손 대(煙草)
그릇 동이 사발
장 권 축 덩이

켜레 벌 꼭지 접 코 줄 줌 마리 자웅
모금 웅굼 아름 뼘 발 그루 개 상 해
배 곱 곱장이 갑질 번 분 째(次序) 원 자루 집
도(度) 초(秒) 따스。

四、不完全名詞의 獨立性。 不完全名詞는 케 홀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冠形語를 가지고야 쓰이는 名詞이다。이것은 그뜻과 쓰임으로 보아 副詞性 不完全名詞와 普通不完全名詞와의 두가지로 가른다。

1、副詞性不完全名詞의 例는 아래와 같다。

양、—그가 아는 양은 하지 마는 모른다。
체、—무엇이나 다 아는 체를 하지 말라。
척、—자네는 모른 척을 하고 있었지。
둥、—너는 먹은 둥 만 둥을 하였나。
채、—사과는 껍질 채로 먹어야 좋다。
이 논은 벼가 있는 채로 팔지 아니합니다。
대로、—본 대로 말을 하시오
마음 대로 잡으시오。

(2)、普通不完全名詞의 例는 아래와 같다。

것、—당신이 가지신 것은 무엇이오。
바、—내가 할 바는 공부이다。
줄、—님 향한 一片 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네가 씨름할 줄을 아느냐。
이、—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이를 돕는다。
커기 앉은 이가 누구십니까。
대、—學校 있는 대가 우리 마을이오。
콩 심은 대에 콩이 난다。

위에 말한 것 가운데 더러는 境遇를 따라、接尾辭로 보아서 그 위의 말과 合하여 한 單語로 만드는 것이 便하다。例를 들면

이것、커것、그것、노는이(遊食者)、지은이(作者)、젊은이(少者)、늙은이(老者)

五、年月日時의 單語。 (1)、年은 어떤 紀元에서 繼續하야 나가므로、만일 數冠形詞와 한 單語로 만들어 쓴다면、그 單語가 無限히 늘어갈것이오、또 年의 이름이 아니라、第 몇째 해라는 數字를 먼저 생각한다。그러므로、數冠形詞는 떼어 쓰는것이 옳다。例를 들면。

西曆 일천구백삼십육 년
한글 頒布 사백구십 년

(2)、月은 한 單語로 쓰는것이 옳다。이것은 열두달에 制限이 되어 있고、또 數冠形詞를 떠나서 딴 이름이 있는것을 보아서 달의 이름으로 알수가 있다。그래서、다음과 같이、한 單語로 쓴다。

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유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상달) 십일월(동짓달) 십이월(섯달)。

(3)、日도 한 單語로 쓰는것이 옳다。이것은 역시 單語數의 制限이 있고、또한 數冠形詞 식으로 되것이

아니라、아래와 같이 날의 이름으로 되었다。

하룻날 이틋날 사흣날 나흣날 닷샛날 엿샛날 이렛날 여드렛날 아흐렛날 열흘날 열하룻날 열이틋날 열사흣날 열나흣날 열닷샛날(보름날)……스무날 스무하룻날 스무이틋날……스무아흐렛날 삼십일 삼십일일(그믐날)。

但 몇날(幾個日)이라는 뜻으로 쓸 때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 열흘 열하루……열아흐레 스무 날 스무하루……스무아흐레 설흔날(삼십 일)……마흔 날(사십일)쉰 날(오십 일) 예순 날(육십일)……백 날 천 날 만 날。

(4)、時는 數冠形詞에서 띄어 쓰는것이 옳다。그것은 時와 이름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몇時를 생각하는 까닭이다。그러므로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오전 열 시、열두 시 반、오후 세 시 사십이 분。

六、「하다」를 붙여서 動詞化。

「하다」는 本來「짓다。만들다」의 뜻으로 一般 動詞에 代用하는 代動詞이다。例를 들면、「밥 짓다、옷 짓다、꽃 만들다、국수 만들다」를 「밥 하다、옷 하다、꽃 하다、국수 하다」도 代用한다。그러나、이 代動詞는 補助動詞가 되어 行爲의 뜻으로 名詞에 붙어서 그 名詞가 動詞化하는것이다。例를 들면、

運動하다 勞働하다 研究하다 整理하다
主張하다 改革하다 統治하다 步行하다
負擔하다 搾取하다 放送하다 號令하다
觀察하다 敎授하다 受業하다 淸潔하다
掃除하다 排斥하다 運送하다 發賣하다
印刷하다 培養하다 料理하다 會議하다
出入하다 往來하다 會計하다 農事하다
藥하다 卒業하다 開學하다 入學하다
進級하다 退場하다 注意하다 固定하다
말하다 나무하다(樵) 풀하다(草) 풀하다(糊)
거름하다(肥料)꾀하다(計) 글하다(文) 절하다(拜)
꾸중하다(叱) 한잔하다(一盃) 지랄하다(狂)
생각하다
셈하다(猜) 재주하다(技) 씨름하다 쌈하다(鬥)
굿하다

七、「하다」를 形容詞의 뜻을 가진 漢字語에 나 다른 外來語에나 擬態語에 붙여서 形容詞化。

例를 들면

潔白하다 新鮮하다 堅固하다 勇敢하다
忠實하다 卑怯하다 燦爛하다 輕快하다
純眞하다 圓滿하다 不當하다 滿足하다 正當하다

平平하다 堂堂하다 烈熱하다 明白하다
活潑하다 肥大하다 미안하다 未安하다
健康하다 聰明하다 險峻하다 平凡하다
平坦하다 高尙하다 高貴하다 淺薄하다
純良하다 淡淡하다 惡하다 善하다
貴하다 賤하다 富하다 貧하다 腐敗하다
公平하다 델리케이트하다(微妙) 얼룩얼룩하다
물렁물렁하다。

八、「되다」를 붙여서 動詞化。「되다」는 「이루다」의 뜻으로된 獨立한 動詞이다。例를 들면 일이 되다。學校가 되다。말이 되다 물이 얼음이 되다。내가 學生이 되다。굼벙이는 매아미가 되다。그러나 이것은 그 본뜻을 가지고 또 補助動詞가 되어 名詞에 붙어서 그名詞가 動詞化하는것이다。例를 들면

생각되다 결합(結合)되다 흥분되다 중첩되다
이(利)되다 해되다 운동되다 영광되다
감금(監禁)되다 망발되다 욕되다 발명되다
반대되다 발견되다

九、「되다」를 붙여서 形容詞化。例를 들면

참되다 잡되다 헛되다 망영되다 어중되다 왕청되다
쌍되다 그릇되다 덜되다 못되다。

사전편찬회 소식

조선어학회에서 지난 사월부터 조선어사전 편찬의 사업을 시작하고、그사이 열심으로 편찬을 진행중인데、이 사업이 본디 전조선적으로 기대가 큰이만큼 일반 사회에서 열렬한 성원이 있음은 물론이요、이 편찬사업을 위하야 특히 물질적으로 후원하여주신분은 다음과 같다。

張鉉植氏 李祐植氏 閔泳旭氏 金良洙氏
金度演氏 徐珉璟氏 申允局氏 林燦圭氏
金鍾哲氏 李 仁氏

『한글』 간행비를 부담하여주신 李祐植 선생에게 감사함을 말지 아니합니다。

조선어학회 사룀

辭典 編纂과 綴字法

金 允 經

辭典과 마춤법(綴字法)과의 關係가 어떠하다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읍니다。마춤법의 如何로 말의 排列이 여러가지로 달라진다 함은 누구든지 알수 있는 일이어니와、이것은 무엇보다도 辭典과 마춤법의 가장 重大한 關係라 하겠읍니다。그러하므로 辭典을 編纂함에 當하여 그 基礎事業의 하나로 반드시 먼저 마춤법을 規定하지 않으면 아니되는것입니다。

그러한데、마춤법은 우리 한글 歷史上에 나타난대로 여러번 變遷이 있었읍니다。

첫째는 訓民正音式의 마춤법인데、이것은 訓民正音의 創定하던 때(世宗 二十八年、西曆 一四四六年)로부터 訓蒙字會가 나던 때(中宗 二十二年、西曆 一五二七年)까지 쓰던것인데、龍飛御天歌、月印千江之曲、法華經、圓覺經、金剛經、楞嚴經들이 다 이 訓民正音式 綴字法으로 쓴 것입니다。 이 法의 特色은 單語를 오늘날 처럼 固定化하지 않고 境遇 따라 달리 쓰는것이라 하겠읍니다。가령 『말솜』이라 쓰다가도 그 밑에 『이』토가 올것 같으면 『말ᄉᆞ미』라 쓰고、『ᄇᆞᆯ』이라 쓰다가도 그 밑에 『이』토가 올것 같으면 『ᄇᆞᄅᆞᆯ』이라 쓰고、『ᄭᅳᆯ』토가 올것 같으면 『ᄭᅳᄃᆡ』、『을』토가 올것 같으면 『ᄭᅳᆯ』이라 쓰고、『잇거늘』이라 쓰다가도 『이시리오』라고 쓰는 따위외다。이 마춤법의 重要한 規定으로는

一、終聲(바침)은 初聲을 다시 쓴다。

二、「ㅇ」이것을 脣音 밑에 連署하면 脣輕音이 된다。

三、初聲을 合하여 쓸 경우에는 나란히 쓴다。

四、終聲도 合하여 쓸 경우에는 나란히 쓴다。

五、ㅗㅜㅛㅠ들은 初聲 밑에 붙이어 쓴다。

六、ㅏㅓㅑㅕ들은 初聲의 오른편에 붙이어 쓴다。

七、모든 字는 合하여야 音을 이루게 된다。

八、왼쪽에 한 點을 찍으면 去聲이요、두 點을 찍으면 上聲이요、點이 없으면 平聲이요、入聲은 點 찍는것은 같되 促急히 낸다。

九、ㄱ을 幷書하면 蚪(ᄭᅡ) 初聲과 같이 낸다。

一〇、ㄷ을 幷書하면 覃(땀) 初聲과 같이 낸다。

一一、ㅂ을 幷書하면 步(뽀) 初聲과 같이 낸다。

一二、ㅈ을 幷書하면 慈(쭈) 初聲과 같이 낸다。

一三、ㅅ을 幷書하면 邪(ᄊᆞᅣ) 初聲과 같이 낸다。

一四、ㅎ을 幷書하면 洪(홍) 初聲과 같이 낸다。

一五、中間音을 規定에는 두지 않았으나、實際 用例에는 『洪ㄱ字』、『君ㄷ字』、『侵ㅂ字』、『蚪ㅎ字』、『快ㆆ

字』、『英主△알핀』、『性ㅈ字』、『正齒ㅅ소리』따위가 많이 보임。

둘째、訓蒙字會式의 마춤법인데、이것은 訓民正音이 施行된지 八十一年 뒤에 崔世珍이 訓蒙字會란 漢字初步 敎科書를 만들고、그 凡例에 마춤법을 規定한것인데、이것이 最近까지 (지금도 그 자취가 남아 있음) 流行되던것입니다。그 重要한 規定은 다음과 같은것들입니다。

一、ㄱㄴㄷㄹㅁㅂㅅㅇ八字는 初聲에나 終聲에 通用한다。

二、ㅋㅌㅍㅈㅿㆆ八字는 初聲에만 쓴다。

三、ㆁ字를 除去한다。

四、ㆆㅇ兩字는 처음에는 좀 다르나 大體 相似한것이다。漢音의 ㆆ音 初聲은 혹은 尼音에 붙이고 혹은 ㅇ混同되어 區別이 없다。

이같이하여 訓民正音의 規定에는 큰 革命이 일게 되었읍니다。

셋째、우에 말한 訓蒙字會式의 마춤법이 流行되어온 뒤로 언제 특별히 改定한 일도 없이 변하게 된것이 적지 않습니다。그 重要한 變化를 들면 다음과 같은따 위외다。

一、△音이 廢止됨。

二、ㄷ音도 終聲에는 아니 쓰게 되고 ㅅ으로만 쓰게 됨。

三、ㆆ音도 初音에는 아니 쓰게 됨。

四、ㄲㄸㅃㅉ들을 ㅺㅼㅽㅾ들로 고치어 쓰게 됨

넷째、新訂國文式이 池錫永의 奏請을 光武 九年 (西曆 一九〇五年) 七月에 發表되었었으나、그 內容은 大體로 訓蒙字會式에서 當時 變遷된 部分만을 俗用대로 修訂함에 不過하나、『ㆍ』의 字形을 『ㅡ』形으로 고친때문에 學界의 異議와 研究熱을 일으키었을뿐이고、實行에는 이르지 못한것입니다。

다섯째、總督府의 第一次 規定인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이 明治 四十五年 四月에 發表되어 普通學校의 敎科書가 이에 의지하여 編纂 使用하게 되었읍니다。그 重要한 規定은 다음 같은따위었읍니다。

一、京城語를 標準하고 可及的 從來의 慣用을 取함。

二、『ㆍ』를 廢止하고 『ㅏ』로 統一함。

三、純 朝鮮語에는 ㄷ行、ㅌ行은 ㅏ列、ㅓ列、ㅗ列、ㅜ列만 使用하고 其他列은 ㅈ行과 ㅊ行을 使用함。

四、從來에 ㅏ와ㅑ、ㅓ와ㅕ、ㅗ와ㅛ、ㅜ와ㅠ의 두가지 法으로 쓰던것은 ㅏㅓㅗㅜ로 統一함。

五、活用語의 活用語尾는 可及的 語의 本形과 區別하여 씀。

七、ㄷ終聲을 가진 말 밑의 토 『은』이나 『을』따위는 『흔』이나 『흘』로 씀。(習慣대로 ㅅ終聲을 그냥 둔

까닭)

八、토 『눈과』 『논』、『를』과 『룰』의 두가지로 쓰던것을 『는』、『를』로 統一함。

九、終聲 制限 때문에 發音대로 적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토 『이』를 『히』、『시』、『치』、『기』로 쓰고、『을』을 『홀』、『슬』、『츨』、『글』로 쓰고、『은』을 『흔』、『슨』、『츤』、『근』으로 쓰고、『에』를 『헤』、『세』、『체』、『게』로 쓰고、『으로』를 『흐로』、『스로』、『츠로』、『그로』로 씀。

一〇、된소리는 『ㅅ』만 쓰고 『ㅂ』(『뻐』같은)、『ㄱ』(『까지』같은)들을 取하지 아니함。

여섯째 總督府의 第二次 規定인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大要』가 大正 十年에 發表되었읍니다。純粹한 朝鮮語는 表音的 綴字法을 採用하고 漢字音은 歷史的 綴字法을 採用하게 되었는데、그 重要한 規定은 다음과 같읍니다。

一、現代 京城語를 標準하여 될수있는대로 發音대로 적음。

二、頭語로는 ㄴ音이 脫落되더라도 다른말 밑으로 갈때 ㄴ音이 나는것은 ㄴ音 있는것으로 씀。(『녀름』 『념』 같이)

三、漢字音 頭音이 ㄹ되는것은 ㄹ音이 脫落되더라도 ㄹ 있는것으로 標準하여 적음。(『리익』 같이)

四、『ㆍ』音은 廢止하고 『ㅏ』도만 씀。『ㅏ』로 아니나는것은 그 나는대로 적음。(『마음』『가슴』 같이)

五、純 朝鮮語에서는 『댜뎌됴듀디 랴려료류리』를 『자저조주지차처초추치』로、『샤셔쇼슈』를 『사서소수』로 『쟈져죠쥬』를 『자저조주』로 씀。漢字音은 歷史的 法대로 씀。

六、終聲은 從來대로 ㄱㄴㄹㅁㅂㅅㅇ에 限함。

七、活用語의 活用語尾는 可及的 語幹과 區別하야 적음。(『먹엇소』『떨어진다』『붉은 옷』 같이)。그러나 ㅅ終聲의 말 中에는 例外를 둠。(『짓는다』—『지즐』 『옷는다』—『쇼즐』、『것는다』—『거들』같이)

八、『이、은、을、에、으로』들의 토는 위의 말의 終聲의 種類에 딸아 『치、히、시、츤、슨、츨、흘슬、체、헤、세、츠로、흐로、스로』들로 적음을 認定함。

九、從來 『는』과 『논』、『를』과 『룰』、『은』과 『온』、『을』과 『올』같이 두가지로 쓰던것은 『는』、『를』、『은』、『을』로 一定하게 적음。

一〇、從來 『히』또는 『이』를 붙이어 副詞로 쓰는것 中、漢字밑에는 純 朝鮮語 밑에는 發音대로 「히」 또는 『이』를 씀。(『閑暇히』、『놉히』、『만이』、『나란이』같이)

一一、된소리 記號로는 ㅅ만 쓰고 ㅂ、ㄱ 같은것은

아니씀。(『ᄭᄯᄲᄶᄴ』 같이 만 씀)

一二、二語 合成의 境遇에 中間에 促音 現象이 일어나는 때는 ㅅ을 上語의 終聲이나 下語의 初聲에 붙이어 적기로 함。(『동짓달』、『외양간』、『모쌰리』、『괴쌀』 같이)

一三、같은 綴法의 말로서 長短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것은 符號를 붙임이 좋겠으나 略하기로 함。

一四、假名 表記法。(略함)

•••일곱째 總督府의 第三次 規定인『改定諺文 綴字法 槪要』가 昭和 五年 二月에 發表되어 그해 四月부터 이 綴字法에 依한 敎科書를 쓰게 되어 現在 實行되고 있는것입니다。그 內容을 다 紹介할수는 없으나、京城語를 標準하여 發音대로 表記한다는 原則에서 다음 같은것이 그 重要한 規定입니다。

一、「、」를 廢하고 『ㅏ』로 씀。

二、『댜쟈뎌져됴죠듀쥬디』를 『자저조주지』로、『챠탸쳐텨쵸툐츄튜티』를 『차처초추치』로、『샤셔쇼슈』를 『사서소수』로 發音하는것은 다 發音하는대로 씀。

三、『뎨몌볘셰졔쳬켸톄폐』를 『제메베세체체케체페』로、『믜븨싀츼킈픠』를 『미비시치키피』로、『취』를 『취』로 發音하는것은 發音대로 씀。

四、『갓모』가『간모』、『국내』가 『궁내』로 들리는것은 發音을 좇지 않음。

五、二語 合成의 境遇에 그 中間에 促音 現象을 일으킬 때 우의 말이 中聲(홀소리)으로 끝났으면 『ㅅ』을 終聲처럼 붙이고 우의 말이 終聲(닿소리)으로 끝났으면 다른 말과 混同될 念慮 있을 경우에 限하여 『ㅅ』을 中間에 둠。

六、漢字音 中에 習慣으로 變하여 내는것(『시월』、『봉어』따위)은 發音대로 적음。

七、한말이 경우를 따라 달리 되는것은 다 각 경우의 發音대로 적음。(이—앞니、여우—암너우、욮—편욮따위)(用言은 一定不變함)。

八、動詞나 形容詞의 끝에 무슨 소리를 더하여 名詞化하는 境遇에 『음』이나 『이』를 더한것은 語源을 밝히고 그 밖의것은 語源을 밝히지 않음(『웃음』『죽음』、『놀이』、『마개』、『주검』、『무덤』 같이)

九、擬聲語 끝에 『이』 붙이어 名詞化한것은 語源을 밝히지 않음。(『피꼬리』 같이)

一〇、된소리는 『된시옷』을 廢止하고 같은 소리를 幷書함。ㄲㄸㅃㅆㅉ 같이)

一一、終聲은 從來 써오던 ㄱㄴㄹㅁㅂㅅㅇㄺㄻㄼ 外에 ㄷㅌㅈㅊㅍㄲㄳㄵㄾㄿㅄ들을 더 씀。(『흥』、『싸』、『랎』이 否認되고 밨도 『값』은 認定하나 『없어서』는否認됨)

一二、助詞(토)는 그 위의 말의 몸과 區別하여 씀

(『사람이』『넋이』 같이)

一三、ㄷ終聲 밑에 『이』토가 올 때는 發音대로 『치』로 적음。(『밭치』『끝칩니다』 같이)。또 『에』 토가 올때에는 『테』로 적음 (『꽃테』『빛테서』 같이)。

一四、『ㅎ』終聲 否認의 結果로 그 밑에 오는 『고』 『게』『지』『다』따위는 『코』『케』『치』『타』로 쓰게 됨。 『조코』『만케』『올치』『너타』같이)

一五、그밖에 줄어지는 境遇와 不規則의 경우라든지 其他 發音을 좇아 적음을 規定함。

여덟째 朝鮮語學會의 『마춤법 統一案』이 最後로 한글 發布 第 四百 八十 七回 紀念日 (昭和 八年 十月 二十九日)에 發表되었읍니다。

이 內容 規則에 對하여는 發表 當時에 各 新聞과 雜誌의 附錄으로 또는 單行本으로도 널리 流布된것인고로 이제 여기에 다시 紹介하기를 略하겠읍니다。

右案은 一般 人士에게 綴法의 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많은 努力과 物質과 時間을 들이어 研究 制定한것임은 勿論입니다。그러하나 一邊으로는 編纂中에 있는 辭典의 基礎가 되는것이므로、더욱 時急히 制定하게 된것입니다。어찌하여 辭典 編纂에 對하여 먼저 綴字法을 規定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냐 하면、이는 綴字法 如何에 따라 單語의 形狀이 대단히 다르게 되기때문에 찾아보려는이가 그 辭典이 어떠한 標準의 綴字法에 根據하여 排列되었는가를 알지 못하고는 찾아내기에 無限한 不便과 無用의 努力을 虛費하게 되겠는 까닭입니다。가령 實例를 들어 말하자면、『된시옷』을 옳다고 보는 綴字法에 의지하여 『ㅺ닭』이라고 배운 사람이 같은 音 幷書를 옳다고 보는 綴字法에 根據한 辭典에서 『ㅺ닭』을 찾는다면 몇달을 두고 찾더라고 찾지 못할것은 事實이니、『까닭』이라고 쓰리라는 標準을 알고 찾아야 찾게 될것입니다。또『ㅅ』바침을 否認한 綴字法에 根據하여 編纂한 辭典에서 『있(有)』다는 말을 찾으려 하여도 찾을수 없을것이요、그것을 是認한 綴字法의 辭典에서 『잇(有)』다라고 찾는다 하여도 또한 『잇(連)』다 外에는 찾기 힘들을것입니다。또 『ㅎ』바침을 否認하는 綴字法의 辭典에서 『좋다(好)』는 말이나 『옳다(可)』는 말이나 『많다(多)』라는 말을 찾으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일것이고、또 그것을 是認하는 綴法의 辭典에서 『조(好)』타、『올(可)』타、『만(多)』타 같은 말을 찾으려 한다면 또한 어리석은 일일것입니다。言文 研究의 老將인 某氏가 總督府 編纂의 『朝鮮語辭典』에서 『가리마』를 찾다가 찾다가 지치어 떨어지어서 『원 그처럼 通俗的으로 날마다 婦女子들이 머리 빗을적마다 쓰는 『가리마』도 없으니、그런 거지 같은 辭典이 어디 있단 말이냐?』고 역증을 내었다는것은 有名한 話題가 되었읍니다。그러하나 그 辭典에 그

말이 없음이 아니라、綴法이 쉬로 다른것을 自己 標準만 생각하고 찾은때문에 못 찾은것입니다。거기에는 『갈이마』로 실린 까닭이었읍니다。물론 辭典에서 어떠한 말을 찾기 어렵고 쉬움은 다만 綴字法 如何에만 關係 되는것은 아닙니다。씨의 갈래(單語區分) 如何라든지、標準語의 如何라든지、排列法의 (가령) 從來 남들이 우리 語彙를 排列할 때 쓰던 音節式으로 한다든지、또 『알파베트』式으로 한다든지 함과같이) 如何라든지는 다 같이 辭典 編纂에 當한이의 先決的 基礎 工事가 되는것입니다。그러하나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는 다른 분이 쓰시겠기에 이만 그치겠읍니다。

(六月 二十 五日)

調査會式羅馬字

正式으로 採用 決定

教科書、驛名、船名等 改書

六月 二十六日 午後 文相官邸에서 開催한 第十四回 臨時羅馬字調査會 總會에서는 田中館 博士等의 主張한 「調査會式羅馬字」의 採用이 可決되어、年來의 問題가 이에 完全히 解決되었다。

이 「調査會式羅馬字」는 標準式(헤뻔式)과 日本式과의 折衷案으로 作成된것이니、그 本質은 日本式羅馬字와 같이 「サ行」의 「シ」는 「S—(SH—에 대신)」、「ハ行」의 「フ」는 「HU(FU에 대신)」로 하는等 標準式羅馬字와는 顯著히 面目을 달리한것이 있다。臨時羅馬字調査會는 이 新羅馬字 採用決定으로써 近近 解散될터인데、이 新綴字는 今後 各官公署의 公式으로서의 羅馬字綴로 使用하기로 된것이며、그 結果로 文部省에서는 現行 高等小學校用 英語教科書中의 羅馬字를 新式의 綴字로 改正하고、또 鐵道省에서는 驛名 看板을 改書하여 遞信省所管에서는 船名을 改書하는等 될수있는대로 속히 實施할 豫定인데、그 影響은 장차 크리라 한다。

新式羅馬字

ア a	イ i	ウ u	エ e	オ o
カ ka	キ ki	ク ku	ケ ke	コ ko
サ sa	シ si	ス su	セ se	ソ so
タ ta	チ ti	ツ tu	テ te	ト to
ナ na	ニ ni	ヌ nu	ネ ne	ノ no
ハ ha	ヒ hi	フ hu	ヘ he	ホ ho
マ ma	ミ mi	ム mu	メ me	モ mo
ヤ ya	イ i	ユ yu	エ e	ヨ yo
ラ ra	リ ri	ル ru	レ re	ロ ro
ワ wa	キ i	ウ u	ヱ e	ヲ o
ガ ga	ギ gi	グ gu	ゲ ge	ゴ go
ザ za	ジ zi	ズ zu	ゼ ze	ゾ zo
ダ da	ヂ zi	ヅ zu	デ de	ド do
バ ba	ビ bi	ブ bu	ベ be	ボ bo
パ pa	ピ pi	プ pu	ペ pe	ポ po
キャ kya		キュ kyu		キョ kyo
シャ sya		シュ syu		ショ syo
チャ tya		チュ tyu		チョ tyo
ニャ nya		ニュ nyu		ニョ nyo
ヒャ hya		ヒュ hyu		ヒョ hyo
ミャ mya		ミュ myu		ミョ myo
リャ rya		リュ ryu		リョ ryo
ギャ gya		ギュ gyu		ギョ gyo
ジャ zya		ジュ zyu		ジョ zyo
ヂャ zya		ヂュ zyu		ヂョ qyo
ビャ bya		ビュ byu		ビョ zyo
ピャ pya		ピュ pyu		ピョ pyo

備考 (1) 撥音은 모두 ㄴ으로 쓸것。(2) 必要한 경우에는 si, ti, tu, tya, tyu, tyo를 si, ti, tu, tya, tyu, tyo 와 같이 쓸수 있음。

朝鮮語學會 規則

第一條 本會는 朝鮮語學會라 일컫음

第二條 本會는 朝鮮語文의 研究와 統一을 目的함

第三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左記 部署를 둠

經理部
庶務部
會計部
出版部
圖書部

第四條 本會는 京城에 둠

但 地方에는 支會를 두기도 함

第五條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別會員의 三種으로 하되、正會員은 滿 二十 五歲 以上者로서 會員의 推薦과 幹事會의 審査로 許入하고、準會員은 滿 二十 五歲 未滿者로서 會員의 推薦과 幹事會의 審査로 許入하고、別會員은 一年間 한번도 會에 出席이 없고、會費를 내지 아니한 會員으로 함

第六條 入會金은 壹圓、會費는 正會員은 年 二圓、準會員은 壹圓으로 함

第七條 被選擧權과 投票權은 正會員에 限함

第八條 退會를 願하는이는 請願하여 承諾을 얻어야 함

第九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贊成하는이는 本會의 贊成員으로 함

第十條 本會에는 任期 一年의 幹事長 一人과 各部 幹事 一人식을 둠

一、幹事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各部를 統轄함

二、經理部 幹事는 本會의 經營에 專力함

三、庶務部 幹事는 本會의 通信、記錄、其他 다른 部에 屬하지 아니한 事務를 맡음

四、會計部 幹事는 本會의 會計事務를 맡음

五、出版部 幹事는 本會의 出版事務를 맡음

六、圖書部 幹事는 本會의 文庫事務를 맡음

第十一條 幹事長과 幹事는 總會에서 選擧함。必要을 따라 部員 若干人을 둘 때에는 幹事會에서 選定함

第十二條 本會는 每年 四月에 定期總會를 열되、本會員 三分之一 以上의 出席이라야 함

但 不得已한 경우에는 在京 會員數의 三分之一 以上으로도 開會할수 있음

第十三條 必要한 때에는 臨時總會를 열기로 함

第十四條 本會는 每月 한번씩(둘재 土曜日) 月例會를 엶

第十五條 本會는 本會의 目的을 이루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함

一、講演會
二、講習會
三、講義錄、學報、研究叢書、調査報告書、關係 古文獻、其他 必要 書籍의 出版

第十六條 本會則을 고치려 할 때에는 總會의 決議를 얻어야 함

第十七條 本規則에 未備한것은 幹事會 또는 總會의 決議로 行함

한글 支社

全南 光州邑 崔奇一
黃海道 載寧邑 日新里 朴周陽
平北 鐵山邑 東平洞 李明克
平南 義州邑 鄕校洞 劉天德
平北 七坪市 朴潤元
慶北 尙州邑 金成煥
慶南 統營邑 金永斗
全北 高敞邑 鄭德寶
全北 全州邑 大和町 天主敎會 陳春海
平北 宣川郡 水淸面 嘉物南 徐廷壽
慶南 金海邑 田蒙秀
平南 鎭南浦 新興里 盧在甲
忠南 江景驛前 華山里 朴苦京
平壤府 巡營里 中央書房 徐仁錫
咸南 興南 荷德里 李昌連
黃海道 平山郡 古之面 浣亭里 李龍植
黃海道 白川溫泉 宋雲峰
慶南 咸安郡 法寺面 輪外里 趙載孝
咸南 新興郡 西古川面 吉峰里 李弼鍾

京城府 堅志洞 三二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送金 注意

一、本誌 代金을 보내실 때에는 그 單數를 반듯이 二十錢、四十錢、七十五錢으로 하여 보내 주시오。만일 一圓이나 五十錢으로 하여 보내시면、計算上 不便이 많읍니다。

二、送金하실 때에는 반듯이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라고 밝히 쓰시오、數字와 住所는 흘려쓰지 마시오。

三、送金은 반듯이 振替貯金 郵便으로 보내시되、만일 부득이 郵票로 代送하실 때는 五厘짜리 二錢짜리 三錢짜리 같은것은 無妨하나、十錢짜리나 그 以上의것은 보내지 마시오。收入印紙 같은것도 보내지 마시오。

四、代金이 다할 때에는 封皮에 『代金盡』이라는 도장을 찍읍니다。곧 送金하지 아니하시면、雜誌의 發送을 中止하게 됩니다。

社告

地方에서 한글 支社를 設置하고저 하시는분은 한번 書面으로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朝鮮語學會

定價

一個月 七錢
三個月 二十錢
六個月 四十錢
一年 七十五錢

代金은 반듯이 선금을 要함。

廣告料

表紙 表面 二十圓
仝 裏面 十五圓
普通頁 十圓

詳細는 相議를 要함。

昭和 十一年 七月 廿九日 印刷
昭和 十一年 八月 一日 發行
京城府 花洞町 一二九番地
編輯兼發行人 李允宰
京城府 堅志町 三二番地
印刷人 金鎭浩
京城府 堅志町 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 花洞町 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
振替 京城一〇〇四四番

昭和九年四月十四日(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十一年八月一日(修正八月一日一回發行)

忽三版

延禧專門學校
敎授
文學士 崔鉉培 先生 著

중등조선말본

菊判 二百頁
定價 八十錢
送料 六錢

標準될
朝鮮語
文法書
가出現

朝鮮語學會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基準한 最初의 文法書이다。이것은 著者가 한글 硏究의 泰斗로 數十年 專心 硏究한 要領을 總滙한것으로、朝鮮語의 硏究와 學習에 아울러 指針이 되는 基礎智識書이다。이 책의 評價는 發行이 아직 周年이 못되어 三版이 거듭하고 또 賣盡에 가까운것으로써 自判할것이다。무릇 朝鮮語에 뜻둔이로는 반듯이 손에 떠나지 못할 寶典이다。

發賣處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朝鮮語學會